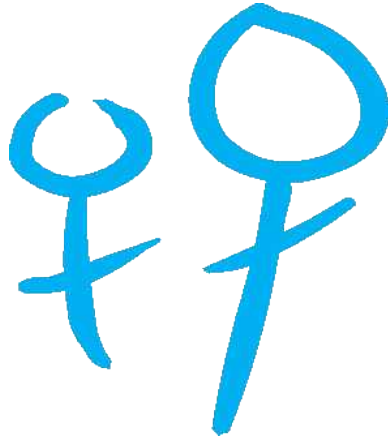


함께하는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2023 정기회원총회



- ◆ 때: 2023년 1월 31일(화) 오후 7:00
- ◆ 곳: 함께하는거창 사무실



참여와 자치의 지역공동체
함 께 하 는 거 창

50128

경남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 6길 8-8, 1F

전 화 055-942-1117

팩 스 055-943-1170

전자우편 cham1117@hanmail.net

누 리 집 <http://gcngo.org>

총 회 순 서

1. 개회선언
2. 공동대표 인사말
3. 2022년 결산보고
4. 2022년 사업보고
5. 2023년 사업계획(안) 의결
6. 2023년 예산(안) 의결
7. 정관 개정(안)
8. 기타 안건 토의
9. 폐회선언

공동대표 인사말

강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상임대표 신 용 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모로 힘든 일 년이었습니다. 아직 코로나 사태가 끝나지 않았습지만, 총회를 계속 약식으로 치를 수 없기에 올해는 정식으로 총회를 열기로 하였습니다. 3년 만에 열리는 정식 총회이니만큼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과연 한국에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록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면 악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심지어 제도까지 전복되는 사태도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6월 항쟁의 성공으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했던 때가 있었고, 촛불혁명의 성공으로 이제는 더는 한국의 민주제도를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희망은 담은 전망을 했으나, 지난 대선 후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쉽게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과 경제 사정의 악화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정권이 민중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관계가 긴장 관계로 돌아섰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적 대결에서 정부의 편향적인 대응을 보면 걱정이 더해집니다. 이래서는 답이 없습니다. 촛불혁명과 정권교체 후 이제는 되었다며 휴식하거나 다른 길에 있었던 민주시민들은 다시 모여 힘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역사는 항상 이러한 질곡 속에서 발전합니다.

“함께하는 거창”이 추구하는 “참여와 자치의 지역 공동체”는, 민주주의는 지방 자치에서 완성된다는 이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역사적 사실에서 보듯이, 풀뿌리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최종 단계에서 성취됩니다. 그만큼 힘겹고 지루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국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다면, 대안정책의 제시로 일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도적 민주주의를 향한 비판을, 다른 한편으로는 대안정책을 제시하는 일을 병행해야 합니다. 지난해의 사업을 보면, 군의원 평가, 종합복지센터 건립 반대 운동, 퇴직공무원 예산지원사건 등은 전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반면, 거창읍 자전거도로 실태조사와 장기계획 제안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사정을 고려해보면, 당분간 이러한 기조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군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일은 상시적 일입니다만, 여기서 조금 더 진전시켜 군의원 평가에 이어 군수평가까지 가능할 것인지, 자전거도로 조사에 이어 보행권 조사를 할 수 있을지 검토하여 추진해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몇 년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나 일손이 부족해 진행하지 못한 일이 올해는 조금이라도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즉, 장기적인 비전을 세우기 위해 거창의 인물, 정책, 산업, 지리, 역사 등의 자료를 제작, 축적, 보급하는 일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연구회, 출판사, TV를 만들어 두었으니 바탕은 이루어진 셈입니다. 더구나 사무국장이 이 분야 전문가이니 한결 쉽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몇 년 동안 관련 자료를 축적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클 것입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막 논어를 읽다가 이 글을 씁니다만, 지금 읽는 대목에 증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야 일이 끝나는 것이니, 강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의 일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 했으니, 지치지 말 일입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도 회원님들의 개인적인 성취와 아울러 한국과 세계의 사정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1. 8.

상임대표 신용균



2022년 결산보고



● 회계연도:2022년 1월 1일~12월 31일(단위:원)

1.자 본 현 황

자 산		부채와 자본	
보통예금	5,980,425	차입금(-통장)	0
적금(퇴직적립금)	3,000,000	퇴직적립금	3,000,000
임차보증금	20,000,000	자 본 금	25,980,425
합 계	28,980,425	합 계	28,980,425

2.2022년 회계별 수입·지출 현황

수 입		지 출		잔 액	
일반회계 (사무국)	19,635,292	일반회계 (사무국)	21,945,897	일반회계 (사무국)	8,980,425
				작권모	3,538,084
합 계	19,635,292	합 계	21,945,897	합 계	12,518,509

4.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수입

수 입 (2021년도)			수 입 (2022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12,041,476	회비수입	전년도 이월금	10,091,030
	회비수입	19,950,000		회비수입	18,430,00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사무국)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연구소)	0
	후원금(작권모)	0		후원금(작권모)	0
기타수입	이자수익	8,148	기타수입	이자수익	5,292
	차입금	0		차입금	0
	잡수입	1,249,100		잡수입	1,200,000
	임차보증금	0		부대비용	0
수입합계		33,248,724	수입합계		29,726,322

5.일반회계(사무국) - 전년도 대비 지출

지 출 (2021년도)			지 출 (2022년도)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인 건 비	활동비	14,400,000	인 건 비	활동비	14,400,000
	상여금	400,000		상여금	4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퇴직적립금	1,200,000
	복리후생비	0		복리후생비	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3,600,000
	기기구입비	949,000		기기구입비	185,000
	사무용품비	466,700		사무용품비	65,940
	세금과 공과금	9,960		세금과 공과금	5,010
	소모품비			소모품비	
	수선비			수선비	
	수도광열비	741,520		수도광열비	478,610
	통신비	327,044		통신비	325,247
사 업 비	도서인쇄비	1,018,5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400,000
	발 송 비	227,680		발 송 비	115,940
	분 담 금	150,000		분 담 금	100,000
	사 업 비	831,400		사 업 비	670,150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원활동비 (경조금)	
	회 의 비	35,890		회 의 비	0
	출장연수비			출장연수비	
사업외비용	잡 비		사업외비용	잡 비	
	예비비			예비비	
	현 금	0		현 금	
지출합계		24,357,694	지출합계		21,945,897

6. 계정과목 설명

구분	계정과목	내 용
수 입	회비수입	회원 회비 수입
	후원금(사)	사무국 정기, 부정기 후원금
	후원금(연)	교육연구소 후원금
	사업수익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
	이자수익	예금통장 이자 수익
	차 입 금	-통장에서 빌려온 돈(부채)
	잡 수 익	수입항목이 없는 수입
	전년도 이월금	지난해 장부에서 넘어 온 현금
지 출	급 여	상근 실무자 급여, 활동비
	상 여 금	상근 실무자 상여금
	퇴직적립금	상근 실무자 퇴직 적립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
	건물관리비	사무실 월세
	기기구입비	각종 기자재 구입비
	사무용품비	사무용품 구입비
	세금과 공과금	정부, 자치단체에 납부한 세금
	소모품비	쓰레기봉투,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 구입비
	수 선 비	자산 유지, 보수 비용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세, 전기세, 냉난방 비용(기름 등)
	통 신 비	전화, 인터넷, 문자메세지 발송 비용
	도서인쇄비	소식지 등 인쇄비, 복사비, 도서 구입비
	발 송 비	소식지 등 각종 우편물 발송비, 택배비
	분 담 금	다른 단체와 연대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사 업 비	각종 사업비용
	회원활동비	회원 송년회 등 회원활동을 위한 비용
	회 의 비	회원총회, 각종 회의 개최 경비
	출장연수비	교육, 출장에 필요한 비용
	잡 비	기타 계정과목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
	차입금 상환	-통장 상환 금액
	예 비 비	예비비
	현 금	현 금

● 자산변동 현황(2022년 12월 31일 현재)

자 산				부채와 자본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구 분	2021년	2022년	증감
보통예금	8,291,030 (27.5%)	5,980,425	-2,310,605	차입금	0	0	0
적금(퇴직적립금)	1,800,000 (6.0%)	3,000,000	1,200,000	퇴직적립금	1,800,000 (6.0%)	3,000,000	1,200,000
임대차보증금	20,000,000 (66.5%)	20,000,000	0	자 본 금	28,291,030 (94.0%)	25,980,425	-2,310,605
합 계	30,091,030 (100%)	28,980,425	-1,110,605	합 계	30,091,030 (100%)	28,980,425	-1,110,6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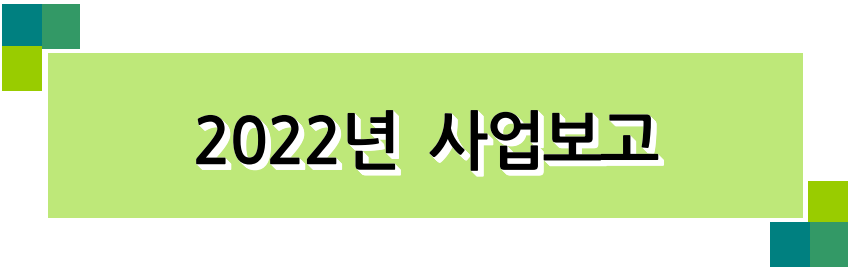
·보통예금: 매년 12월 31일 기준 통장잔액.

차입금: 없음.

·적금(퇴직적립금): 현 실무자 퇴직연금보험 300만원 적립.

·자본금: 2021년에 비해 2,310,605원 감소.

·임대차보증금: 현재 사무실 보증금 20,000,000원.



2022년 사업보고

1 거창군의원 의정활동 평가

『함께하는거창』은 군의원의 활동력을 제고하여 지방자치를 강화하고자, 그 일환으로 2021년 하반기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거창군 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함께하는거창』 회원을 대상으로 질적인 평가 투표도 실시하여 군민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하지만 거창군의원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회원들의 투표 참여율이 낮고 군민들의 관심이 낮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인공지능의 평가가 요구되고 『함께하는거창』 회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요구된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 : 함께하는거창

자료 : 거창군의회 회의록

분석기간 : 2022년 1월 18일 ~ 2022년 3월 28일(제261회 ~ 제262회)

- 1) 본 평가는 2022년 상반기에 거창군의회가 개최한 제261회, 제262회에 대하여 거창군의회 홈페이지에 제공된 회의록 자료를 ‘인공지능 아이’ - 개발업체 서로닷컴에 의뢰하여 얻은 결과이다.
- 2) 본 결과 값은 서로닷컴이 웹사이트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발하여 『함께하는 거창』에 제공하였고, 『함께하는 거창』은 11명의 거창군의원의 데이터를 1명씩 업로드하여 직접 확인하였다. (회의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의원의 직책 및 담당과에 따른 기회 차이를 고려치 않음.)
- 3) ‘발언가치 쿼티티(Ea), 대군수지적 쿼티티(Ea)’ 값은 인공지능이 모든 의원의 데이터를 동일한 조건에서 판단하고 빅데이터를 빠짐없이 체크 한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지님.
- 4) 함께하는 거창』은 앞으로 인공지능을 더욱 발전시켜서 거창군의원의 업무평가를 더욱 세밀하고 공정하게 분석하여 거창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다.
- 5)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공지능이 분석한 군의원 의정활동〉

	<u>권순모</u>	<u>권재경</u>	<u>김종두</u>	<u>김향란</u>	<u>박수자</u>	<u>신재화</u>	<u>심재수</u>	<u>이재운</u>	<u>이흥희</u>	<u>최정환</u>	<u>표주숙</u>
1. 출석(횟수)	8	15	6	14	15	15	15	11	15	15	9
2. 조례대표발의(건수)	1	0	0	0	0	1	0	0	0	1	0
3. 5분 발언(건수)	2	1	0	2	0	0	1	0	0	1	3
4. 질의(건수)	58	168	34	322	261	116	266	182	55	194	103
5. 발언 분량(KB)	19	67	23	64	57	21	43	57	21	38	18
6. 발언가치 키타티(Ea)	10	11	3	24	11	15	11	16	7	17	6
7. 발언가치 키타티(Lv)	53	16	13	38	19	71	26	28	33	47	33
8. 대군수지적 키타티(Ea)	2	5	1	8	7	9	5	7	5	6	3
9. 대군수지적 키타티(Lv)	11	7	4	13	12	42	12	12	24	16	17

〈의정활동 분야별 순위〉

	권순모	권재경	김종두	김향란	박수자	신재화	심재수	이재운	이흥희	최정환	표주숙
1. 출석(횟수)	10	1	11	7	1	1	1	8	1	1	9
2. 조례대표발의(건수)	1	0	0	0	0	1	0	0	0	1	0
3. 5분 발언(건수)	2	4	0	2	0	0	4	0	0	4	1
4. 질의(건수)	9	6	11	1	3	7	2	5	10	4	8
5. 발언 분량(KB)	10	1	7	2	3	8	5	3	8	6	11
6. 발언가치 키타티(Ea)	8	5	11	1	5	4	5	3	9	2	10
7. 발언가치 키타티(Lv)	2	10	11	4	9	1	8	7	5	3	5
8. 대군수지적 키타티(Ea)	10	6	11	2	3	1	6	3	6	5	9
9. 대군수지적 키타티(Lv)	9	10	11	5	6	1	6	6	2	4	3
참조, 피고발(건수)	0	0	0	1	2	0	0	0	0	0	2

<요약>

- 1) 의원의 출석률이 높았다.
- 2) 조례는 3건이 발의, 통과되었으나, 모두 공동발의의 형식을 취하였다.
- 3) 의원의 절반 정도인 5명이 5분 발언을 하지 않았다.
- 4) 발언의 분량, 키타티, 군정 지적은 의원별로 의미있는 차등을 보였다.
- 5) 비리, 고발 관련 의원은 3명 5건이었다.
- 6) 김종두 의원의 활동은 의장으로서의 특수성이므로 의미가 없다.
- 7) 각론은 다음과 같다. 항목별로 순위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하고, 간단히 분석함.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출석(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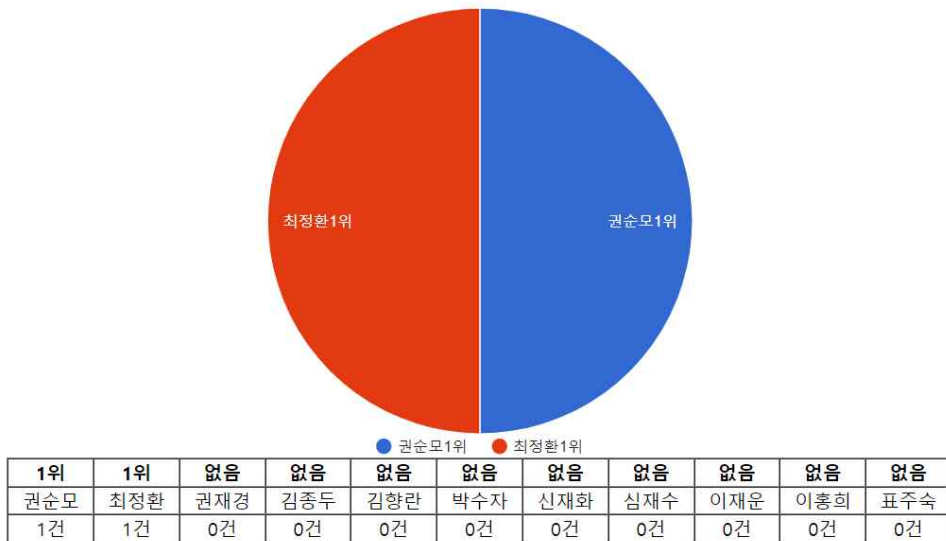


- 1) '출석(횟수)'는 2022년 상반기 2회기 동안 출석한 횟수를 의미한다.
- 2) 월별로 출석 일수는, 1월 - 6일, 3월 - 5일이다.
- 3) 분과별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회, 총무위원회 6회, 산업건설위원회 6회,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보고청취특별위원회 4회 등이다.
- 4) 김종두 의원은 의장으로서 분과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출석횟수가 적다.
- 5)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출석률은 높았다고 평가된다.

<각 위원회 소속의원>

본 회의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김종두, 심재수, 이흥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11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환 김향란 심재수 이흥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박수자 (8명)
총무위원회	최정환 김향란 권재경 박수자(4명)
산업건설위원회	표주숙, 심재수, 이흥희, 신재화, 이재운(5명)
군정특별위원회	최정환, 김향란, 표주숙, 심재수, 이흥희, 신재화, 이재운, 권재경, 권순모, 박수자(10명)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조례대표발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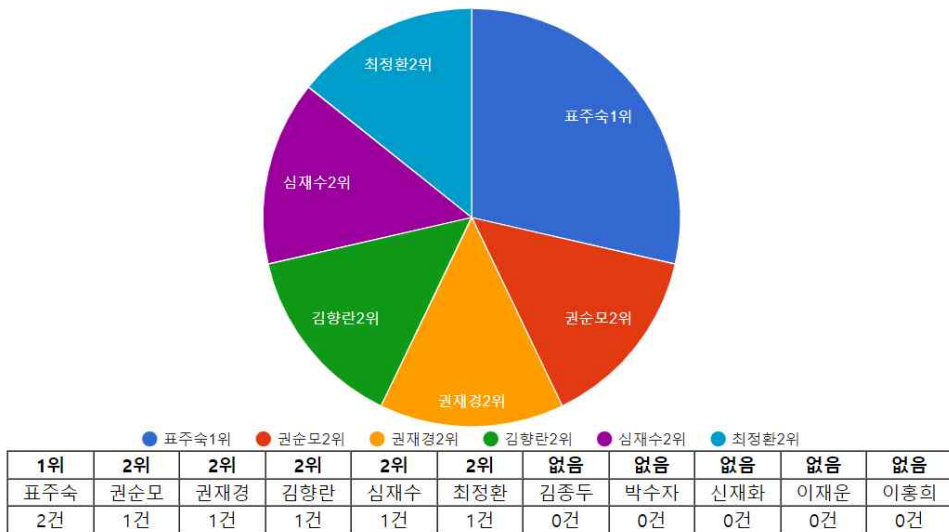


- 1)본‘조례대표발의(건수)’는 공동발의는 제외하고 대표 발의 의원만 인정할 결과다.
- 2)권순모,최정환 의원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 3) 2건이 공동발의,통과된 사안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요구된다.

<2022년 상반기 의원 조례 발의 내역>

회수	대표발의 의원	조례명	결과
261회	권순모	거창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
262회	최정환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원안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5분발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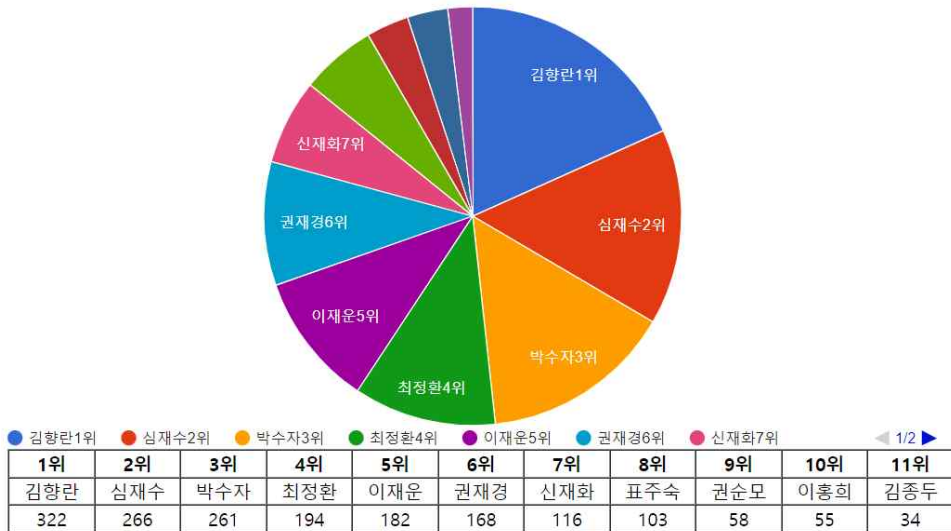


- 1)본'5분 발언(건수)'는 상반기 동안5분 발언을 한 건수다.
- 2) 1명이2건, 2명이 5건 발언하였다.
- 3) 5분 발언의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2년 상반기 거창군의원5분 자유발언 주제>

회기	의 원	제 목
제261회	표주숙	초등학교 과밀해소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제261회	권재경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군 청사 주차장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제261회	최정환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거창 만들기!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도시 거창 만들기!
제262회	심재수	거창경찰서 이전, 군 차원의 노력 재촉구 거창경찰서 이전, 군 차원의 노력 재촉구
제262회	김향란	상하수도 설치 수용가부담금의 공정성을 위하여 상하수도 설치 수용가부담금의 공정성을 위하여
제262회	표주숙	선거접친 영농철 인력난 어쩌나 선거접친 영농철 인력난 어쩌나
제262회	권순모	인구감소! 남 탓 말고, 나와 내 주변 환경부터 갈아엎자! 인구감소! 남 탓 말고, 나와 내 주변 환경부터 갈아엎자!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질의(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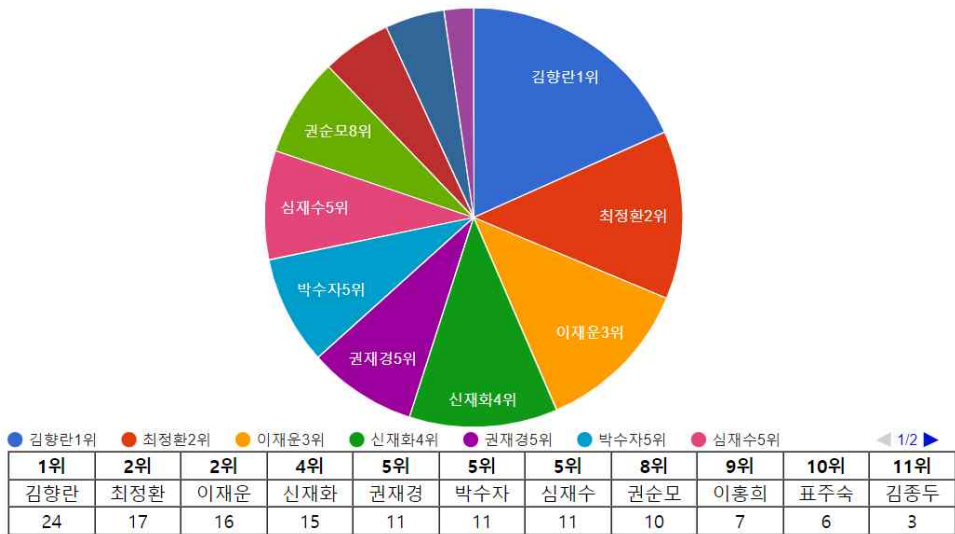
- 1) '질의(건수)'는 의원 간의 차이가 크다. 1위와11위는 거의10배 차이가 있다.
- 2)질의는 연구하는 의원상과 정비례하므로 의미 있는 자료이다.
- 3)김향란 의원의 질의 수가 압도적이다.
- 4)질의 내용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2021년 하반기 거창군 군의원 발언분량(KB)



- 1) '발언 분량(KB)'은 해당 의원이 2022년 상반기에 회의록에 기록된 발언 데이터의 양으로 측정하여 킬로바이트로 환산한 결과다.
- 2) 발언 분량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
- 3) 질의 건수와 발언 분량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발언가치 키타티(Ea)



- 1) ‘발언가치 키타티(Ea)’는 해당 의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발언 패턴을 분석하여 유익한 질의에 점수를 부여하며 얻은 결과 값이다. 예를 들어 해당 의원이 거창 발전을 위해 통계 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다면 그 패턴을 분석하여 유익하다고 판단 되면 점수가 부여된다. 이번 인공지능이 분석한 패턴은 ‘타 도시 예시 분석’, ‘창조적 연구 제안 분석’, ‘환경 중요도 분석’ 등 거창 발전에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60여 개의 패턴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값을 얻었다.
- 2) 이 값은 의원 질의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인공지능에 의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내 최초의 시도라는 의의가 있다.
- 3) 의원 사이의 발언 수준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2022년 상반기 거창군 군의원 발언가치 쉼리티(Lv)



1) '발언가치 쉼리티(Lv)'는 해당 의원이 군수제출 안건에 대해 질의한 발언 분량(KB) 중에 유익한 질의가 차지한 분량이다. 이는 발언가치 쉼리티(Ea) 나누기 총발언 분량(KB) 곱하기 100에서 얻은 값이다.

2) 이 값은 군의원의 발언 중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질의 했는가의 지표이며 질의 내용에 연구와 조사 등의 노력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2022년 상반기 거창군수제출 안건에 대한 대군수지적 쿼티티(Ea)



- 1) '대군수지적 쿼티티(Ea)'는 해당 의원이 군수제출 안건에 대해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보일 때 부여된 값이다. 이 또한 '발언가치 쿼티티(Ea)' 값과 같이 인공지능이 군의원의 발언 패턴을 분석하여 얻은 값이다.
- 2) 군의원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군수에 대한 견제이므로, 이 수치가 지니는 의미는 크다. 특히 거창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계수조정 때는 마이크를 끄고 계수를 증감 결정하기 때문에, 회의록에는 계수조정에 대한 군의원들의 발언이나 반대 의사 표명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군의원의 군수 견제의 역할을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군수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요청의 수준은 군의원의 역할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수치가 된다.
- 3) 인공지능이 분석한 수치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거창군수제출 안건에 대한 대군수지적 켈리티(Lv)



- 1) '대군수지적 켈리티(Lv)'는 해당 의원이 군수제출 안건에 대해 질의한 발언 분량(KB) 중에 잘못을 지적하거나 검토를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패턴이 차지한 분량이다. 이는 대군수지적 켈리티(Ea) 나누기 발언 분량(KB) 곱하기 100에서 얻은 값이다.
- 2) 이 값은 군의원의 총발언 중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적했는가를 보여준다.

거창군 군의원 비리 & 부정(성명서, 고발 기준)



1위	2위	2위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김향란	박수자	표주숙	권순모	권재경	김종두	신재화	심재수	이재운	이흥희	최정환
3건	1건	1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성명서 & 고발	
김향란	①거창YMCA 김향란 거창군의회 의원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 ②거창군 의원, 김향란 ‘농지법 위반’ 벌금 700만 원 선고. ③거창군의회 부의장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 카드로 다수의 공무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
박수자	①주민투표법 제21조' 주민투표 당일에는 투표 운동을 금지한다는 조항 위반
표주숙	①표주숙 군의원 자신의 땅 앞 절차 무시하고 다리 건설

- 1) ‘피고발(건수)’ 값은 의원의 잘못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행사한 건수로 기간에 상관없이 수작업으로 제공된다.
- 2) 주민의 저항이나 고발은 공직자의 비리나 부정과 관련될 가능성이 크므로 공사익의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론>

1. 이 데이터는 군의원들의 활동 내용을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해 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 이를 통하여 군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한다.
3. 거창군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의원의 의정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우리는 이 작업을 통해서 거창군 의원이 군정의 감시와 견제라는 중요한 역할을 더욱 활발하게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4. 이 자료는 함께하는 거창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다.

2 거창군 행정동우회 과잉 예산 편성 비판

거창군이 ‘거창군 행정동우회’ 활동이 거창군 행정 및 환경정화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8천여만 원을 배정하였다. 편성 내용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 31,300,000원, 등산로 정비 7,000,000원, 황강 환경정화사업 4,000,000원,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 5,000,000원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함께하는거창』은 행정동우회가 관료 인물지 발간이나 인물 현창사업에 관여할 경우 객관적이지 못하고 단체와 관련된 인물의 치적이 부각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등산로 정비나 황강 환경정화 사업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봉사 활동하는 단체도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군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하여 “거창군은 추경 ‘행정동우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는 주제로 ‘성명서 발표하였다.

그 결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군의원들은 행정 동우회 지원과 관련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열린 계수조정 결과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 행정동우회 행정 & 봉사활동 지원 거창군 발표 자료

- 사업목적 :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으로 거창군 행정 및 환경정화 기여
-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 사업내용 : 행정발전 필요사업(인물지 발간사업, 환경정화사업,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 추진) 보조금 지원
- 사업비 : 79, 855천원

◎ 편성내역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 31,300,000원

등산로 정비 7,000,000원 황강 환경정화사업 4,000,000원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 5,000,000원

성명서

거창군은 추경 ‘행정동우회’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우리는 거창군이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7,985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으로서 낯뜨거움을 느끼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거창군수는 행정동우회에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에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에 31,300,000원, ‘등산로 정비’에 7,000,000원, ‘황강 환경정화 사업’에 4,000,000원 산출했고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에 5,000,000원을 배정했다.

우리는 이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성도 없다고 판단한다.

우선, 관료 인물지 발간이나 현창 사업은 ‘행정동우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자칫 자화자찬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거창군의 예산을 일개 단체의 자기 자랑에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것이 틀림없다. 군이 문화사업으로 이 작업이 필요하다면, 객관성을 갖춘 학술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에 1천만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환경을 보호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왜 하필 ‘행정동우회’가 이 일을 한다고 재정을 지원하는지 묻고 싶다. 또, ‘행정동우회’가 여는 문예 작품 전시회에 꼭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이유도 궁금하다.

셋째,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장차 다른 사회단체가 자기 단체의 인물지 편찬, 인물 현창 사업, 그리고 봉사활동, 작품전시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 거창군 재정으로 모든 요청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니, 이번 ‘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만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행정동우회 행정발전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하나, 거창군수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형평성을 잃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거창군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03월 23일

보도자료

거창군, '행정동우회' 지원 추경 예산 논란 관료 인물지 발간, 현창 사업 등에 8천여만 원을 편성 시민단체 '함께하는 거창', 합리성과 형평성 지적, 전액 삭감 요구

거창의 시민단체 『함께하는거창』은 거창군이 '행정동우회' 활동 지원 예산으로 7,985만 원을 편성한 것에 대해 거창군민으로서 낯뜨거움을 느낀다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거창군수는 행정동우회에 8천여만 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을 보면, '거창의 관료 인물지 발간사업'에 32,555,000원, '거창의 인물 현창 사업'에 31,300,000원, '등산로 정비'에 7,000,000원, '항강 환경정화 사업'에 4,000,000원, '군민 문예작품 전시회'에 5,000,000원을 편성했다.

이에 함께하는 거창은 이 예산 지원이 적절하지 못하며, 형평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관료 인물지 발간이나 현창 사업은 '행정동우회'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시했다. 자칫 자화자찬의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거창군의 예산을 일개 단체의 자기 자랑에 6천여만 원을 지원한다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될 것이 틀림없다고 덧붙였다. 군이 문화사업으로 이 작업이 필요하다면, 객관성을 갖춘 학술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둘째, 등산로 정비와 환경정화 활동에 1천만 원이 넘는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많은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왔는데, 왜 하필 '행정동우회'가 이 일을 한다고 재정을 지원하느니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행정동우회'가 여는 문예 작품전시회에 꼭 재정 지원을 해야 할 이유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셋째,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지적했다. 장차 다른 사회단체가 자기 단체의 인물지 편찬, 인물 현창 사업, 그리고 봉사활동, 작품전시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묻고, 거창군 재정으로 모든 요

청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니 이번 ‘행정동우회’ 지원 예산이 특정 단체만 지원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하는 거창’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하나, 거창군의회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행정동우회 행정발전 및 봉사활동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청한다.

둘, 거창군수는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는 예산안을 편성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형평성을 잃은 예산안 편성에 대해 군민에게 사과하라.

셋, 거창군은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예산편성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이 예산안은 거창군의회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결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끝)

<사무국장 KBS 인터뷰>

KBS 진주 방송 ‘라이브 진주’ 인터뷰(라디오)

주제 : 거창군 행정동우회 예산 지원 삭감과 관련

방송시간 : 3월 31일 오후 5시 15분 ~ 25분(10분간)

3 거창군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 제안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대사회에서 자전거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다. 그러나 거창의 경우 자전거도로가 좁고 노면이 좋지 않은데다가 거창군에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거창군의 자전거도로 대장이 실제도로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 곳곳에 자동차, 오토바이, 광고판 등이 통행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군의 자전거도로를 상세히 조사하여, 거창군 자전거도로 대장과 실제 도로를 동일하게 하고 거창군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여 자전거도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와 함께 거창군 자전거도로 세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거창군에 제안하였다.

그 결과 향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 거창읍 자전거 이용자 설문조사

① 조사 기간

2022년 5월 11일 ~ 2022년 6월 10일

② 조사 장소

전통시장, 상동 농협하나로마트, 스포츠 파크, 인터넷

③ 설문 내용

<거창군 자전거도로 관련 설문조사>

거창군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실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함께하는 거창'이 주관합니다.

성별 : 남 여

나이 :

운행 지역 :

1. 거창에서 자전거 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2.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설문 결과

① 학생(남자)

1. 거창에서 자전거 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1~90번 그린씽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게 태반이다
 - 자전거도로가 너무 끊어져 있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아 위험합니다.
 - 자전거도로가 좁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좁습니다.
 - 자전거도로가 좁아요

2.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노후된 그린씽 교체
 - 자전거 전용 도로 만들어 주세요.
 -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 자전거도로를 넓혀 주세요.
 - 차로 옆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주세요.
 - 자전거도로 넓게 해 주세요.

② 성인(남자)

1. 거창에서 자전거 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노면이 좋지 않아요
 - 자전거길이 없어요.
 - 위험합니다.
 -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좁아 위험해요.

●자전거도로가 너무 좁아요. 자전거도로 표시가 부족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어요. 노면이 안좋아요.

2.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면을 좋게

●거창대로에 자전거 만들어 주세요.

● 시내 자동차 속도를 낮추어 주세요. 50키로 이하로 낮춰 주세요.

●없습니다.

●자전거도로를 넓게 해서 위험을 줄여 주세요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주세요. 자전거도로 표시 잘 해 주시고 넓게 만들어 주세요.

③ 성인(여자)

1. 거창에서 자전거 탈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형식은 자전거도로라고 해놓고 상가에서 전부 물건 내놓고 한 번도 군이나 읍에서 단속 한 번 안 하시고 높낮이나 도로 가장자리 불량, 엉덩이 아프고 위험하고...불만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차가 자꾸만 경계보다 도로로 나오니 위험해요. 빨리 시정해주세요.

●자전거 길에 간판, 오토바이, 자전거, 차량 등이 너무 많아 자전거를 탈 수 없고 자전거길 턱이나 노면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인도, 좁은 인도, 인도를 침범한 주정차차량, 전용도로 없음 등. 자전거 이용활성화 5년이란 말은 쯤..앞으로 활성화를 위해 불편사항을 수집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건지...이제껏 5년 동안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건지...모르겠지만, 일단 자전거 타기엔 취약한 환경입니다.

●자전거도로 취약

●모두 위험해요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위험해요.

●차도로 다니니까 위험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문제점 없습니다.

2.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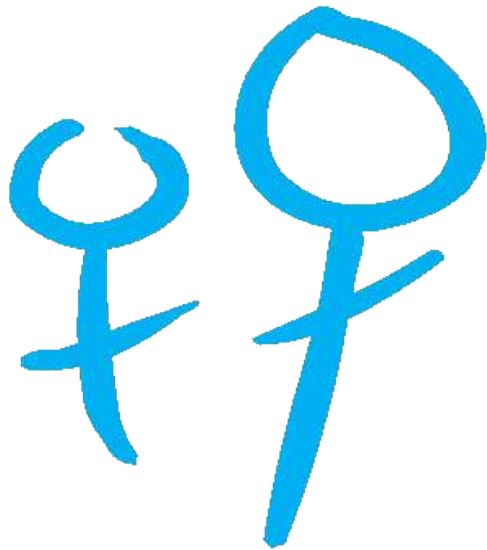
●진정으로 사람을 위하여 일해 주세요. 될수록 사업자도 거창. 사업으로 선택해주세요. 투명하게 처리 홍보해 주세요.

- 자전거길 간판, 오토바이, 차량 단속해 주시고, 자전거 길 정비를 해 주세요. 너무 멀컹거리고 턱이 높아 위험합니다.
- 자꾸 이런 거 설문하지 마시고... 일하시는 공무원 이하 관계자분들께서 당분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 보심이 어떨지요?
- 전용도로 확보
- 안전하게 자전거 탈 곳이 필요해요.
- 중앙로 차량 진입을 중단시키고 자전거와 사람만 진입시키면 좋겠습니다.
-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 없습니다.
- 없습니다.

3) 문제점 요약

- ①남학생들은 자전거도로가 좁다는 의견과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그린씽의 노후화와 고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자전거도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잦은 끊김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 ②성인 남자의 경우 자전거도로의 노면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좁은 것에 대한 지적, 그리고 자전거도로 표시의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 ③성인 여자의 경우 자전거도로에 상가의 물건 적치나 차량 및 오토바이 주차 등에 문제점을 지적했고 울퉁불퉁한 노면에 대해 지적했다. 그 밖에도 중앙로 차량 진입을 중단시켜달라는 바람도 있었고, 공무원들이 당분간 출퇴근을 자전거로 해 봐야 자전거도로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2년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 제안서



함께하는 거창

2022.8.21

차례

서론 -----	35
1. 거창군 지정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문제점 및 시급히 개선할 점 -----	37
1) 1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2) 2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3) 3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4) 4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5) 5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6) 6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7) 7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8) 8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9) 9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0) 10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1) 11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2) 12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3) 13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5) 14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5) 15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16) 실태조사 결과	
3. 향후 거창군 자전거도로 확충 방향 -----	63
1) 외각 지역 - 자전거 전용차로 정비, 신설	
2) 중심가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3) 거창읍 자전거도로 개념도	
결론 -----	66

서론

자전거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즐겨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지금도 읍내에 나가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어르신, 중년의 여성에서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많이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또한, 거창읍은 지형이나 면적으로 보아 자전거로 이동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거창읍에서 자전거는 인기가 높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거창읍은 자전거 타기에 최악의 조건이 되어버렸다. 비좁은 도로, 도로 좌우에 주차한 자동차들, 자전거를 무시하는 난폭한 운전. 그래서 자전거 타는 사람이 위험해 보인다. 실제 거창읍에서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는 경찰서에 신고된 건수만 보더라도 위험한 수준이었다. 1년에 16건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니다. 자전거 운행의 안전이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었다.

‘함께하는 거창’은 몇 달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거창읍을 답사해 보았다. 차도에서 자전거 타기는 보는 것보다 훨씬 위험했다. 또 자전거도로를 답사해 보니, 자전거도로는 통일성이 없었고, 통행을 방해하는 물건이 방치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곳이 많았다. 군청에서 관리하지 않는지, 자전거도로가 거의 방치 수준이어서 실제 자전거를 타기가 불편했고 이용자도 적었다.

우리는 실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했다. 자전거 이용의 애로점과 개선점을 물었다. 이용자의 반응은 우리의 관찰과 다르지 않았다. 자동차의 위협, 자전거도로의 신설과 개선, 위험성 지적 등, 특히 군 공용자전거 ‘그린씽’의 브레이크를 고쳐달라는 요구는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설문문의 결과를 1장에 정리해 두었다.

이후 본격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조사했다. 거창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거창군의 자전거도로는 모두 15개였다. 하나하나 답사하면서 문제점을 살폈고, 각 자전거도로에서 시급해 개선해야 할 점을 사진과 함께 제2장에 정리해 두었다.

우리는 자전거도로 조사를 끝낸 후, 거창군의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인 계획 없이 만들어졌음을 알았다. 자전거도로의 통일성과 연결성 미비는 위에서도 지적

했거니와, 근본적인 문제점은 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내 중심가 접근에 관한 고려가 없었다. 단 하나, 중앙로 일부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있었으나, 실제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했다. 거창읍 자전거도로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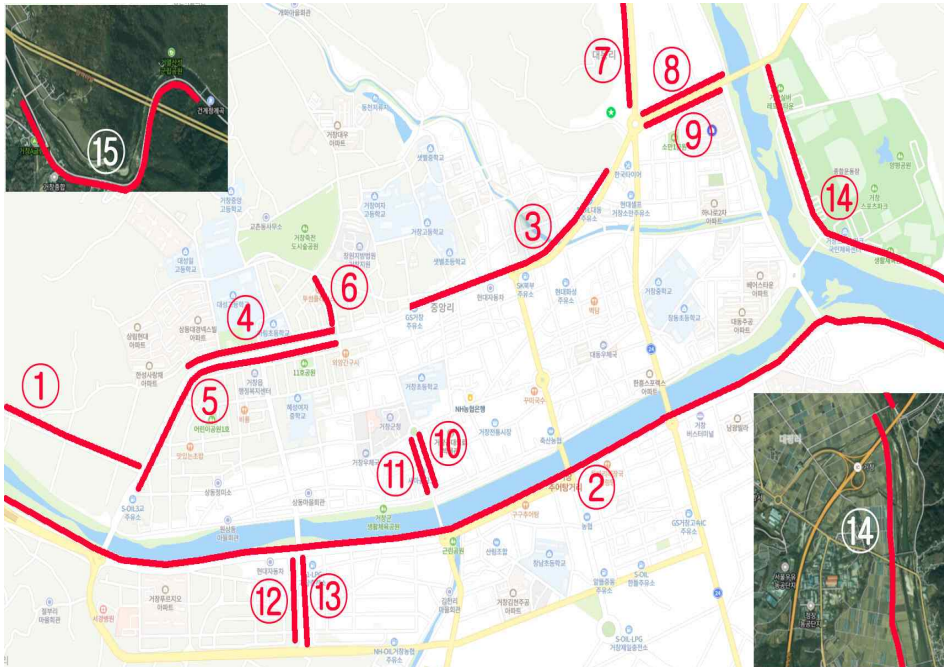
올해는 거창군이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을 세우는 해다. 우리는 이상의 조사를 바탕으로 개선안을 연구했다. 외각 4차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선, 신설하고 시내 중심가 도로를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방안이었다. 그 내용은 제3장에 정리해 두었다.

이번 조사와 연구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 거창군 지정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 문제점 및 시급히 개선할 점 -

<거창군 지정 자전거도로>



1) 1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위천천L	1	자전거 보행자겸 용	거열교	건계 정	거열빌라	1.62	-	1.5~2.5m

구간	도로 폭(cm)	겸용 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표시
거창애도니-송정교 (거열로9길)	207~150	적색 보도블록	없음
거열교-송정교 (강변로)	160	녹색	〃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열교부터 송정교 사이 강변로는 폭 160cm 녹색 탄성재 노면 도로와 시멘트 도로로 분리 되어 있음. 오토바이 진입 금지 표지판은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언급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열로9길, 거창애도니 건너편부터 송정교 사이 도로 우측에 200~150cm 정도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이는 도로가 있으나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고, 노면이 차도보다 좋지 않고 차도에 차량이 적어서 자전거가 차도로 다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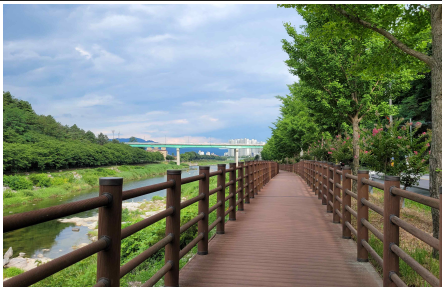
* 시급히 개선할 점

거창군 자전거도로 대장에 등록된 1번 노선이 ‘위천천L’이다. 그런데 조사결과 ‘위천천L’이 어디를 말하는지 알기 어렵다. 가장 시급히 개선할 점은 거열교부터 송정교까지 자전거도로에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등의 지시표지를 해서 자전거도로임을 알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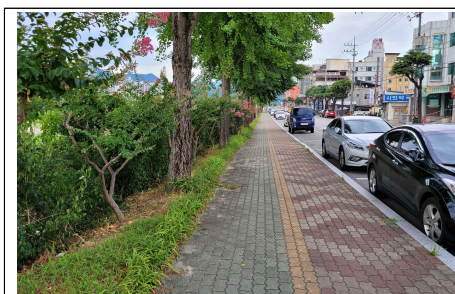
2) 2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위천천R	2	자전거 보행자겸 용	건계정	양향 교	버스터미 널	5.7	-	1.5~2.5m

구간	도로 폭(cm)	겸용 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표시
건계정입구 (주차장 앞)	120	적색 콘크리트	없음
건계정-푸르지오 앞	210 (나무데크 250cm)	나무데크	"
푸르지오-창동교	260/160	적색/회색	"
창동교-코아루	100~150	데크/보도블록	"
코아루-KAE JINFOOD	270	시멘트/아스팔트	"
KAE JINFOOD-양향교	190(왕복 2차로)	아스팔트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건계정부터 푸르지오까지 대부분 도로 폭이 210cm 나무 데크로 되어 있음. 나무 데크 노면은 좋으나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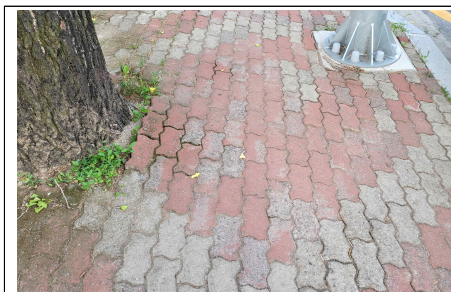
푸르지오부터 창동교까지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폭이 250cm 정도 되지만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전거도로로 사용 가능한 도로 폭은 160cm 정도 되고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창동교부터 코아루까지는 나무 데크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터미널 앞에는 데크 위에 의자가 놓여 있어서 100cm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의자에 기사들이 앉아 있으면 자전거 통과가 어려움.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코아루부터 한들교 지나 KAE JINFOOD(강남로 267-98)까지는 시멘트 길로 되어 있음. 도로폭은 250cm 정도로 이용 가능함.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KAE JINFOOD(강남로 267-98)부터 양향교까지는 도로폭 190cm 왕복 2차로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 표지판과 바닥 자전거 이미지까지 잘 되어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	---------



푸르지오부터 창동교까지는 적색 콘크리트, 회색 보도블록 등으로 되어 있으나 노면 상태가 심하게 좋지 않아서 자전거를 자전거도로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차도로 다니고 있음.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 시급히 개선할 점**

거창군의 자전거도로는 전반적으로 노면이 좋지 않지만, 특히 푸르지오부터 창동교까지 자전거도로 노면은 거창군 자전거도로 중에 가장 좋지 않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텅 비어 있는 자전거도로를 놔두고 차도로 운행하고 있다. 이 구역의 노면 개선은 시급하다.

창동교부터 코아루까지는 나무 데크로 되어 있으나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앞은 의자가 놓여 있어서 의자에 사람이 앉아 있으면 자전거가 통과하기 어렵다. 의자를 강변 쪽 가로수 사이에 놓을 수 있도록 공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아루부터 한들교까지 어느 도로가 자전거도로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자전거도로 지시표지를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

3) 3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거열로1L	3	자전거 보행자겸 용	거창 흥사단	GS거 창주 유소	북부사거 리	0.9	20m (중로1-1 0)	2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거창흥사단 개봉고분 입구	60~70/130	보도블록/건물	적색/도로
거창흥사단 _개봉교	380 (220/160)	보도블록/건물	적색/도로
개봉교 -북부사거리	300 (300/0)	보도블록	없음
북부사거리 -주연싱크	450 (450/0)	보도블록	없음
개봉교-주연싱크 (남쪽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처럼 되어 있으나 체계 없음.		
빙빙월드 -GS거창주유소	510 (370/140)	보도블록/건물	적색/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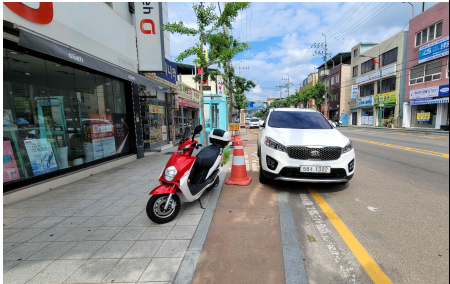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창흥사단 건너편 개봉고분 입구부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시작되지만, 시작 일부 구간은 60~70cm로 자전거 운행이 불가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창흥사단 건너편부터 개봉교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는 적색 도로로 160cm 정도 되고 보행자도로는 220cm 정도 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개봉교부터 북부사거리, 주연싱크까지 적색 노면의 자전거도로가 없음. 대리석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인지 알 수 없음. 이 구역은 턱이 높아 자전거 운행이 위험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개봉교부터 북부사거리, 주연싱크까지 북쪽은 자전거도로라고 볼 수 없고, 건너편 남쪽 도로에는 녹색/적색 도로가 있으나 체계 없이 중구난방으로 뒤섞여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빙빙월드부터 GS거창주유소까지는 적색으로 표시된 자전거도로 폭은 140cm 정도 됨. 보행자 도로는 370cm 정도 되는 곳이 많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빙빙월드부터 GS거창주유소까지 자전거도로 중에 꺾인 부분과 좁은 구간이 있음. 자전거도로 곳곳에 오토바이, 차량, 광고 간판 등이 도로를 막고 있음.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에 상가의 광고판이나 물건들이 많이 놓여 있고 오토바이, 차량의 주차도 많아서 자전거 운행에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자전거도로 노면 색상이 대부분 적색으로 되어 있지만, 개봉교부터 주연싱크까지는 적색 노면이 없어서 어느 도로가 자전거도로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노면 색상의 동일성과 자전거도로 지시표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4) 4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거열로2L	4	자전거 보행자겸 용	하나로 마트	대경아 파트	한마음도 서관	0.58	20m (중로1-1 0)	2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농협하나로마트 -대경아파트앞	600 (300/300)	블록, 시멘트/도로	적색/건물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하나로마트부터 대경아파트까지 자전거도로 폭은 약 300cm로 거창에서 가장 넓은 자전거도로에 해당함.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위치가 뒤바뀌어 설치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한마음도서관 앞 주간선도로와 이면 도로 연결지점 바닥을 적색 바탕으로 깔고 횡단보도를 만든 것은 아주 바람직해 보임. 모든 이면 도로 진입로를 이같이 하면 차량 운전자에게도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임을 알려 주고 자전거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유익해 보임.

* 시급히 개선할 점

일반적으로 도로의 순서는 가장 내측부터 보도, 자전거도로, 시설물(가로수) 지역, 차도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노선의 경우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가 뒤바뀌어 있다. 자전거 운행자는 자전거도로가 사라지는 순간 차도 우측으로 운행해야 하기 때문에 차도와 인접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5) 5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거열로2R	5	자전거 보행자겸 용	레몬트 리안경 원	영광 교회	거창읍 행정복지 센터	0.92	20m (중로1-1 0)	3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거창영광교회 -레몬트리안경원	600 (300/300)	보도블록/도로	적색/건물
레몬트리안경원 -개봉교(동천)	300 (140(적)/160(녹))	대로대장에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창영광교회부터 레몬트리안경원까지 300cm의 자전거도로가 있음, 넓지만 자동차를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구간이 있음.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의 위치가 뒤 바뀌어 설치됨.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레몬트리안경원부터 개봉교까지는 거창군 자전거도로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도로는 녹색과 적색으로 구분되어 있음.

* 시급히 개선할 점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 위치를 일반적 도로 순서에 맞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레몬트리안경원부터 개봉교까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라면 자전거도로 색상통일과 표시가 시급하다.

6) 6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거열로4 길	6	자전거 보행자겸 용	죽전공 원	하나 로마 트	투썸플레 이스	0.2	15m (중로2-4)	1.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죽전공원 -하나로마트	200/130	보도블록/도로	적색/건물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죽전공원부터 하나로마트까지 자전거도로는 130cm 정도로 되어 있음. 자전거도로가 내측에 위치하고 있음. 보행자 도로와 위치 변경해야 함.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노면 파손이 있음.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가 보행자도로보다 내측에 위치하고 있다. 일반적 순서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손된 노면을 보수하는 것이 시급하다.

7) 7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주곡로L	7	자전거 보행자겸 용	현대보 성주유 소	월천초 교	거창농협 농산물집 하장	2.1	20m (중로1-1 0)	3.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현대보성주유소 -동산마을입구	370	적색 콘크리트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현대보성주유소(현재 없음, 개봉회전교차)부터 동산마을 입구까지 폭 370c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있으나 주변 상인들이 도로를 점령하여 대부분의 도로를 사용할 수 없음.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동산마을 입구부터 농업회사법인 거창그린까지 폭 350cm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있음. 이 도로의 문제점은 도로전 구간에 걸쳐 도로를 절단하고 덧댄으로써 도로 노면이 좋지 않음.

현재사진	실태조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거창그린부터 월천초등학교까지는 폭이 260cm 임.

* 시급히 개선할 점

개봉회전교차로부터 동산마을 입구까지 자전거도로에 주변 상가 차량과 물건이 너무 많아서 지나다닐 수 없다.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

8) 8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소만지구 L	8	자전거 보행자겸 용	아월교	개봉 사거 리	-	0.47	25m (대로3-1 1)	1.2~2. 0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아월교 -개봉로터리	460 (280/180)	적색/도로	적색/농지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아월교에서 개봉로터리 자전거도로 폭은 180cm 정도이고 보행자 도로는 280cm 정도임. 자전거도로가 도로 쪽에 위치함. 이면 도로와 연결 부위의 턱이 높아 위험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소만아파트 뒷길도 자전거도로 표시가 없음.

* 시급히 개선할 점

이면 도로 연결 부위의 턱이 높아 위험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자전거도로 표시가 시급하다.

9) 9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소만지구 R	9	자전거 보행자겸 용	개봉 사거리	아월 교	쉐보레 서비스센 터	0.47	25m (대로3-1 1)	1.2~2. 0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개봉로터리 -아월교	300 (120/180)	녹색시멘트/도로	적색/도로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개봉로터리에서 아월교 자전거도로는 적색이며 폭은 180cm 정도임. 보행자 도로는 녹색이고 120cm 정도임. 반대쪽 도로와 위치, 색상이 다름.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개봉로터리에서 아월교로 가는 자전거도로는 턱이 너무 높아 매우 위험함.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위치변경이 필요함.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와 보행자도로 위치변경이 필요하고, 농로와 연결 부위 턱이 너무 높아 위험하므로 개선이 시급하다.

10) 10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아림로L	10	자전거 보행자겸 용	거창교	군청로 터리	이마트24 (편의점)	0.18	15m (중로2-1 7)	1.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거창교 -군청로터리	360 (240/120)	보도블록	적색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아림교부터 군청로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넓은 곳은 120cm 좁은 곳은 60cm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 어려움. 임시 주차공간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좁고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높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많음.

* 시급히 개선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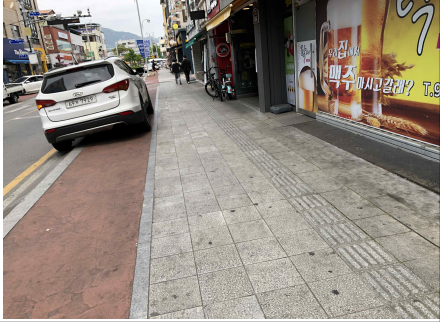
자전거도로 폭이 너무 좁고 보행자가 많아 자전거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해제하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11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아림로R	11	자전거 보행자겸 용	군청 로터리	거창 교	새마을금 고	0.18	15m (중로2-1 7)	1.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군청로터리 -아림교	360 (240/120)	보도블록	적색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아림교부터 거창로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으나 넓은 곳은 120cm 좁은 곳은 60cm로 자전거도로로 이용하기 어려움. 임시 주차공간이 자전거도로를 침범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좁고 보행자와 부딪칠 위험이 높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많음.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 폭이 너무 좁고 보행자가 많아 자전거도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를 해제하고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12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강남길1 길	12	자전거 보행자겸 용	송정2 교차로	아림 교	송정마트	0.28	20m (중로1-1 7)	1.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송정2교차로 -아림교	265 (140/125)	보도블록/건물	적색/도로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송정2교차로부터 아림교까지 폭 125cm 자전거도로가 있음.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건물 진입을 위 해 도로를 비스듬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기는 위험 함.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 지시표지와 노면 정비가 시급하다.

13) 13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강남길1 길R	13	자전거 보행자겸 용	아림교	송정2 교차로	핸즈커피	0.28	20m (중로1-1 7)	1.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아림교 -송정2교차로	265 (140/125)	보도블록/건물	적색/도로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아림교부터 송정2교차로까지 폭 125cm 자전거도로가 있음. 자전거도로 지시표지 없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반대편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로 폭이 좁고 건물 진입을 위해 도로를 비스듬 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로 사용하기는 위험함.

* 시급히 개선할 점

자전거도로 지시표지와 노면 정비가 시급하다.

14) 14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항강지구	14	자전거 보행자겸 용	아월교	월평리 544 일원	거창 스포츠파 크	7.54	일부구간 15m (중로2-1 5)	1.5m
			김용마을구간 (데크)			0.644	일부구간 15m (중로2-1 5)	3m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아월교부터 소각장까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수나 가로등 주변은 도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실제 자전거도로는 85~135cm 정도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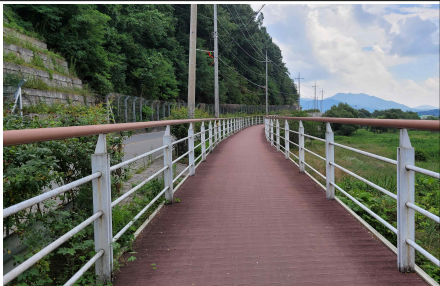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아월교 -취수장	400 (265/135)	보도블록	보도블록
취수장-합수교	305 (220/85)	〃	〃
합수교-소각장	390 (260/130)	〃	〃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소각장부터 양향교까지 250cm 폭의 나무테크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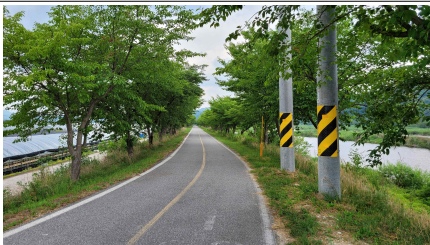
아월교에서 월평리 544 일원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는 두 방향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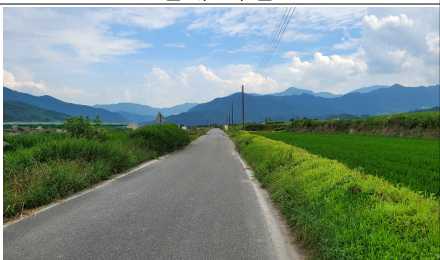
1. 심소정에서 양향교를 건너지 않고 남하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로 옆.
2. 심소정에서 양향교를 건너 창포원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도로.(도로대장도로)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심소정에서 양향교를 건너지 않고 남하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로 옆 도로로, 양향제 생태습지원까지 폭 220cm 왕복 2차로의 자전거도로. 도로대장 미등록.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양향제 생태습지원부터 양곡교까지 폭 260cm 자전거도로가 있음. 도로대장 미등록.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심소정에서 양향교를 건너 창포원 방향으로 나있는 도로로 88고속도로 밑까지는 농로-자전거 겸용도로로 되어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양곡교 시작점에 자전거전용 해제 표시판이 있으므로 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라는 의미임.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88고속도로 밑에서부터 폭 280cm 왕복 2차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음. 이 도로는 도로대장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장에는 자전거 전용이라는 표시판이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88고속도로 밑에서부터 국농소 오수 중계펌프장 시설까지 폭 280cm 왕복 2차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직진으로 계속 되다가 본 시설물에서 우회하여 진행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국농소 오수 중계펌프장 시설부터 양곡교까지 왕복 2차로로 되어 있음.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거창철강 앞에서 우회하여 자전거도로는 이어짐. 폭 230~280cm.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는 남하면 복지센터 앞 다리에서 공사 중이란 표지판과 함께 끝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과거 자전거도로는 표지판만 남아 있고 도로 노면을 파헤쳐짐. 더는 자전거도로로 사용은 불가능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우회하라고 하는 표지판 안내에 따라나 있는 도로는 차량과 함께 다니는 도로로 더는 자전거도로는 없음.

* 시급히 개선할 점

양향교부터 양곡교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지만, 거창군 자전거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다. 등재할 필요가 있다.(거창군 내 등록되지 않은 자전거도로가 많음)

자전거 전용도로 표지판이 있는 도로도 있지만, 거창군 자전거대장에는 겸용도로로 등재되어 있다. 수정을 요한다.

15) 15번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노선명	노선 번호	자전거 도로의 종류	도로구간		주요 경유지	총길 이 (km)	도로 현황	
			기점	종점			일반 도로 너비 (m)	자전 거 도로 너비 (m)
산성교~ 영승리	15	자전거 보행자겸 용	산성교	영승 리	소곡마을	1.99	10m (소로1-3 4)	1.5~2. 5m

구간	도로 폭(cm) (보행/자전거)	보행자도로 (색상/위치)	자전거도로 (색상/위치)
산성교 -영승리	210	없음	아스팔트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산성교에서 건계정교 방향을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음. 하늘색 차선으로 만들어진 차도 옆 도로가 자전거도로임. 우측의 적색 도로는 건계정교까지만 연결됨.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산성교에서 마리면 영승리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로 출발지점은 90cm로 좁으나 곧바로 210cm 폭의 자전거도로가 이어짐.

현재 사진	실태조사 결과
	자전거도로는 장백마을 앞 장백교 가기 전에 끝남. 현재는 오수시설 공사 중으로 진입 불가함.

* 시급히 개선할 점

산성교에서 마리면 방향 자전거도로 입구의 표지판 설치가 시급하다.

(두 갈래 길 중에 오른쪽 길이 자전거도로 같지만, 오른쪽 길은 건계정교에서 멈춤)

16) 실태조사 결과

이상은 ‘함께하는 거창’이 몇 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타고 거창읍의 도로를 실사한 후, 현재 거창군이 지정한 자전거도로를 중심으로 실태와 문제점을 정리한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본바, 자전거도로 지정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에서 자전거 운행자들이 매우 위험에 처해 있었다. 사정은 설문조사에서 지적된 내용보다 더 심각했다. 또한, 대부분의 자전거도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거창군의 자전거 운행자 보호를 위한 시급하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우선, 위에서 자세히 지적했듯이, 현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①노면이 좋지 않고, ②색상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③자전거도로 위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④도로 연결 부위의 턱이 너무 높고, ⑤자전거도로 지시표지가 너무 없고, ⑥자전거도로 위에 광고 간판, 차량, 오토바이 등이 너무 많다. 마치 자전거도로를 형식적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현재 자전거도로에서 빨리 개선할 점은 “시급히 개선할 점”에서 지적해 두었으니, 거창군은 우선 조치하기 바란다.

둘째, 거창군이 자전거도로를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웠다. 실례로, ‘함께하는 거창’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거창군 ‘자전거도로대장’과 실태조사로 얻은 자전거도로 현황이 달랐다. 예컨대, 양향교부터 양곡교까지 도로 옆 자전거도로나 개봉회전교차로부터 거창흥사단입구까지 등 몇몇 곳은 자전거도로 표시는 있으나 자전거도로대장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자전거도로를 관리하지 않아서 실제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한 곳도 빈번했다. 따라서 거창군은 먼저 거창군 자전거도로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 모든 자전거도로를 대장과 일치시킨 후, 정기적으로 관리하기 바란다.

셋째, 현재 거창읍 자전거도로의 근본적인 한계는 자전거도로의 통일성, 연결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특히 중심가 접근을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장차 자전거도로는,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정비,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거창읍에 자전거 이용이 많은 곳은 일차적으로 시내 중심 지역이다. 그리고 학교 가는 길은

학생들의 이용도가 높다. 도로 사정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기 쉽지 않은 곳은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따라서 장차 거창읍의 자전거도로는, 4차선 외각도로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정비, 개설하고, 시내 중심가 도로는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15번 자전거 도로와 창포원 자전거도로처럼 면 지역으로 나가는 자전거도로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3. 향후 거창군 자전거도로 확충 방향

- “2022년 거창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제언

거창읍 지역은 비교적 평지이며 넓지 않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다. 그러나 시내 중심가는 2차선으로 도로가 좁고, 4차선 도로는 대부분 한 차선에 노면 주차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자전거 운행이 어렵고, 또 위험하다.

또한, 거창읍에 다수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관리가 소홀하여 이용하기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거창읍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고,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한 중심지역에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읍민의 자전거 이용이 갈수록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이 줄어들수록 차량통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외각 지역인 거열로, 강남로, 창동로, 강변로에 자전거 전용차로를 정비, 신설하고, 중심가인 아림로, 중앙로, 거창대로 일부를 자전거 우선도로의 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외각 지역 - 자전거 전용차로 정비, 신설

중심가를 둘러싸고 있는 외각 도로는 2차선 도로이며,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된 곳이 많다. 이곳에 기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차도 변 주차 공간을 조금 활용하면, 자전거 운행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목적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해 읍의 각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읍민들이 굳이 중심가로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않아도 편하게 중심가의 사무를 볼 수 있다.

①동서축.

거열로와 강남로가 대상이다. 두 도로는 모두 4차선이고 상당 구간 넓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비교적 정비하기 쉽다. 강남로의 자전거도로는 노면을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거열로는 끊어진 부분에 자전거도로를 신설하여 연결해야 한다.

여기서 꼭 지적될 것은, 자전거도로의 통일성과 안전성이다. 이는 자전거도로에 적용될 기본 원칙이지만, 특히 현재 거열로의 자전거도로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질서하다. 자전거도로는 차도와 격리되어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동시에 인도와도 뚜렷이 구분되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면을 정돈하고, 위치를 차도 쪽으로 통일해야 한다.

②남북축.

거열로 서단, 창동로, 강변로가 대상이다. 거열로 서단은 이미 자전거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므로 위의 원칙에 따라 정비하면 될 것이다. 반면, 창동로와 강변로는 자전거도로의 개설이 필요하다. 특히 이 지역은 차량의 통행이 번잡하고, 도

로 양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으므로, 자전거도로의 분리성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2) 중심가 -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거창읍 자전거도로의 핵심은 자전거의 안전한 중심가 접근성이다. 거창읍의 중심가는, 역사적으로 관아가 있었던 곳으로, 지금도 군청, 경찰서 등 관공서와 상설시장과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다. 따라서 인적인 이동과 차량의 동행이 많고, 지금 자전거가 많이 오가는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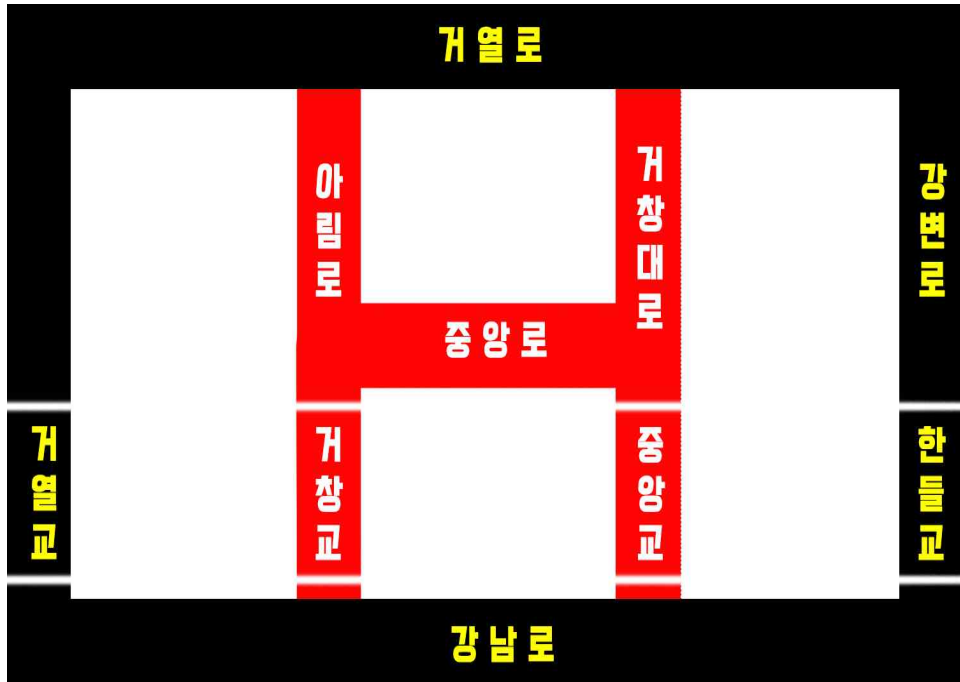
반면, 이 지역은 도로가 좁아 적잖은 교통의 불편을 초래하는 곳이다. 좁은 도로에 차량이 몰리다 보니 종종 정체 현상이 일어나며, 차량의 속도가 자전거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 중심가에 일을 보기 위해서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것보다 빠르다. 만약 중심가에 자전거 운행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확보된다면, 읍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함으로써 쉽게 중심가에 접근할 수 있다. 이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도 이바지할 것이다.

난제는, 중심가는 2차선의 좁은 도로이기 때문에 실제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 거창교에서 중앙 로터리에 이르는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으나, 실제 자전거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는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아림로, 중앙로, 거창대로 1개 차선의 일부 구간을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3) 거창읍 자전거도로 개념도

요약하면, 거창읍의 자전거도로는 외각지역 4차선에는 목자형의 자전거 전용차로를 확보하고, 시내 중심가 도로를 2차선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개선안이다. 이상과 같이 자전거도로가 확충되면, 읍민들은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읍의 전 지역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고 자동차의 통행이 줄어 쾌적하고 평화로운 시가지가 될 것이다. 이번 “거창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에 이러한 정책이 담겨지길 기대한다.

<거창읍 자전거도로 개념도>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결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세계적 추세며, 미래의 가치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전거 도로를 갖추고 있으며 자전거 타기도 일상화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각종 자전거를 장려하는 법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향을 막론하고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있다. 5년마다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도 그 일부이다. 올해는 거창군이 이 기본 계획을 작성하는 해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거창의 자전거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안을 연구하여, 기본 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였다.

조사작업은 거창 읍내 자전거 이용자의 설문조사와 실제 자전거를 타고 거창 읍내를 답사하는 조사로 이루어졌다. 두 조사의 결과는 비슷했다. 방치된 듯한 자전거도로의 실상, 탑승자가 느끼는 것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자전거 운행 모습이 금방 눈에 들어왔다. 조사가 진행되자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거창의 자전거도로가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그 결과, 자전거도로의 통일성이 결여되었으며, 자전거도로에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곳도 여럿 있었다. 무엇보다, 읍 외각 거주지역에서 관공서와 상가가 밀집된 중심으로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고려가 없었다. 거창읍의 자전거도로 및 안전 운행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서 거창의 15개 자전거도로의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점을 사진과 함께 적시해 두었다. 거창군은 우리가 지적한 내용을 실제 답사해 보고, 말 그대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존 자전거도로는 통일성에 유의해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거창읍 자전거도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설령 위에서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시급해 개선할 사항’을 정비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이 어려울 것이다. 두 가지만 지적하자면, 하나는,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읍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심가, 즉 관공서, 시장가로 오가는 자전거 운행의 배려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 두 가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거창 읍민의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안은 자전거도로의 기본 틀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외각 4차선 도로에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개선, 신설하여 목자형을

갖추고, 중심가 2차선 도로에는 그자형 자전거 우선도로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기본 틀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15개의 기존 자전거도로와 연결되면, 거창 읍민들은 마치 동네 마실가듯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전거도로는, 읍을 관통하는 영호강가의 자전거도로, 거창 읍에서 위천천이나 아월천 강가의 자전거도로, 합수에서 창포원에 이르는 강변 자전거도로와 연결되어 쾌적한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거창군은 이번 2022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에 우리의 제안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먼저, 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시급해 개선해야 할 점’을 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목자형 자전거 전용차로와 그 자형 자전거 우선도로 설치를 기본계획도에 반영하기 바란다. 지도를 들여다보면서 탁상공론 식으로 계획하는 외지 업체의 연구 용역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행정 당사자들의 경험이 중요하다. 설문조사 응답에서도 나왔듯이, 거창군수와 해당 공무원들은 실제 자전거를 타고 거창 시내를 다녀 볼 일이다. 일반도로와 자전거도로를 단 며칠 만 주행해 보아도 실상을 알 것이며, 그래야 사정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둘째, 거창군의회는 ‘거창 자전거도로 설치와 이용’ 조례를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현재 거창의 자전거도로는 방치에 가깝다. 또한, 기본 계획의 허술함으로 인해 자전거 이용에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심지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읍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민의를 대변하여 군정을 감시해야 할 군의회가 소홀하게 여길 일이 아니다.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고, 기본 장기 계획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자전거도로와 자전거 이용을 점검할 조직이 필요하다. 이 조직은 우선 장기적인 기본 계획을 검토하고, 또 그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나아가 읍민의 입장에 서서 자전거도로와 이용을 수시로 조사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가칭 ‘거창 자전거 위원회’는 읍민을 주축으로 구성하되 전문가, 의회, 군 담당자가 참여해야 할 것이다.

거창읍은 살기 좋은 규모의 소읍이며, 거창군은 산수가 빼어나 질 높은 삶을 누리기에 적합하다. 이러한 조건에 장차 적절한 자전거도로가 완비된다면, 거창군은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고장이 될 것이고, 거창 사람들의 행복도가 높아질 것이다. 거창 자전거도로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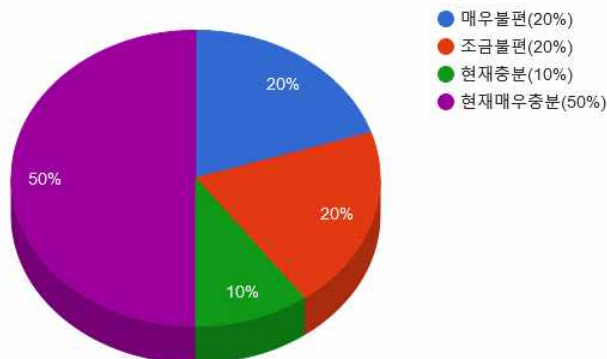
4 거창의 미래 교육과 복합교육센터 건립 대응

거창군은 현 지원 지청 부지에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용역 결과 사업비 893억 원, 매년 15년 적자)의 거창군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군민의 공개적 의견 수렴 없이 밀실에서 했다가 함께하는 거창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반대에 따라 철회하고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거창군민이 원하고 거창군에 가장 적합한 건물을 세우겠다고 각 단체 의견 수렴과 군민 100인 대토론 개최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다시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용역 중에 있다. 거창군은 용역 중에 몇 차례의 토론을 더 가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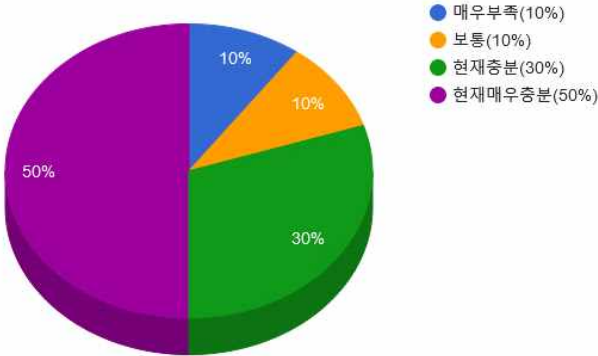
■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함께하는거창』은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거창시민사회단체 회원 대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거창군에 전달했다.

1. 거창군 도서관을 이용하실 때 도서관이 작아서 불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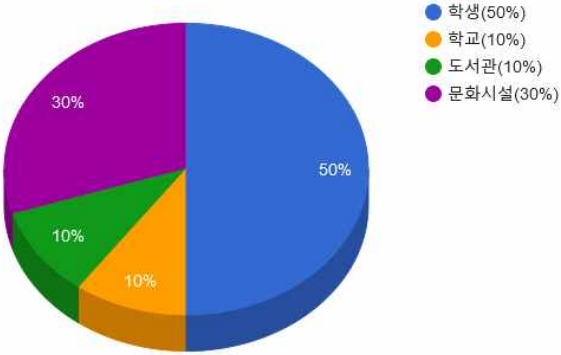
2. 공연활동, 문화활동을 할때 있어서 거창군이 제공하는 장소(거창문화센터, 상설미술, 수련관, 문화의집 등)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 동아리/동호회 활동을 할 때 현재 거창군에서 제공하는 장소(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학교 체육관 등)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거창군이 교육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현재 지원·지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6. 그 밖에 현재 지원·지청 자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귀하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 다양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미술관, 공연장, 소규모 모임장소, 청년발전소 등
- 지금 건물을 잘 활용해야지 무조건 부수고 다시 짓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죽전공원과 연결하여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도서관으로 활용.
- 건물일부는 각종 소모임을 위한 공간으로 재활용, 주변은 개방형 공원으로 활용
- 지원 지청 그대로 유지
- 교육복합센터가 아니더라도 교사들의 연수센터나 연구활동들을 직접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나 생각—
- 미술관, 작은 공연장, 어린이 도서관
- 작은 건물을 새로 짓고 공원의 기능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 꼭 필요하다면 현 건물을 리모델링후 통폐합된 도서관 하나를 만들어 크게 사용하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 군민들이 편안하게 이용 할 수 있는 공원 등으로 활용
- 적십자병원 이전
- 리모델링 후 사용하세요

7.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귀하의 생각을 적어 주세요.

- 지속적인 관리 적자가 예상되는 건물은 군민들에게 부담이 된다.
- 기존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고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이 우선이다. 마을에 아이들이 북적대도록 면에 대한투자를 늘여 농촌 인구가 늘고 출산도 늘리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있는 공간을 시설개선해서 잘 사용합시다
- 건립하지않는것이 좋겠습니다.
-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가 계속 줄어가는데 적자가 예상되는 건물은 안된다
- 주변에 청소년 시설도 많고 도서관도 있고, 거창에 문화센터가 최근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계획에 넣은 것은 운영비만 부담될 뿐입니다.
- 적저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재건축이 필요함
- 그리고 도서관 통폐합후 남은 기존 시설물을 동아리, 소규모 공연장등으로 활용해도 좋을듯 합니다.
- 기존에 있는 건물(공간) 활용하면 좋겠다.
- 복합교육센터 처럼 큰 건물보다는 작고 친환경적인 건물로 여러곳에 분산 투자
- 절대 반대 군비 낭비입니다.

8. 거창군의 발전을 위해 좋은 방향에 제시해 주세요.

- 작은 문화시설을 여러개 곳곳에 만들어 군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면지역에는 학생, 젊은 학부모들이 만날공간이 없다 예산이 있다면 면지역에 작은도서관 커뮤니티센터가 필요합니다
- 아이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십시오.
- 교사들의 질적 발전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 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작은 것을 곳곳에 만들어야 한다.
- 만약 신규건물을 지어 복합교육센터를 거창하게 만들고, 타지역사람들도 방문 이용할수 있게 하려면 면단위 발전을 위해 외곽 지역에 이러한 시설물들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 판단됩니다. 복잡하게 구도심에 이런 큰 건물의 설립은 투자비도 유지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할거라 생각되네요.
- 기존의 건물 등을 사용하기 편안하게 인테리어 하여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 농촌환경과 잘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곳으로 만들어 주세요
- 불행한 군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거창군민 100인 대토론회 개최

1.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2. 8. 23.(화) 15:00 ~ 18:00 (3시간)
- 장 소 :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3층) 대강당
- 참석대상 : 군민 100명
- 토론주제
 - 1부 토론 : 거창의 미래교육 방향
 - 2부 토론 :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
- 토론방법 : 퍼실리레이터를 활용한 토론 및 발표

2. 토론회 참가 인원

- 거창시민사회단체 추천인원 12명(함께하는거창, YMCA, 농민회 등)

3. 토론회 준비

- 거창시민사회단체 군민 100인 대토론회 관련 사전 준비 학습
(2022. 8. 16 거창여성회 사무실)

4. 토론회 결산

- 예산

- 퍼실리테이터 수당 : 금4,463,300원
- 퍼실리테이터 자문 및 원고료 : 금1,132,000원

- 진행 시행사

- 시행사 해당없음.
- 단, 한국퍼실리테이터협회에서 추천한 퍼실리테이터 10명 위촉

- 참여인원수

- 모집인원 : 군민 100명
- 참여인원 : 군민 84명(코로나19 확진 및 개인사정 등으로 16명 불참)

- 수집된 내용 및 정보

- 군민 100인 대토론회 결과물(아래 붙임)

- 향후 진행방향

- 교육도시 거창!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시행 : 2022. 11.
-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구상하는 미래 교육도시 방향 및 비전 수립
- 「교육도시 거창! 미래를 말하다」 군민 100인 대토론회 결과 반영

■ 군민 100인 대토론회 결과물

□ 제1주제 : 거창의 미래교육 방향

- 군민들이 바라는 거창교육의 미래상 정립

↳ 참가자 전체 휴대폰 QR코드를 통해 현장투표 실시하여 순위 작성

1. 행복한 공동체에서 참여와 소통을 하며 지역인재로 자라나는 교육
2. 세대간의 이해와 소통으로 협력하고 배움을 즐길 줄 아는 청소년
3. 창의성과 예술이 빛나는 환경문화도시 거창
4. 학생들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백없는 거창교육
5. 청년의 행복을 위해 협력과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교육
6. 창의적 사고력과 생태감수성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
7.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교육정책

8. 건강한 은퇴, 세대간 소통과 공감으로 평생교육도시 거창 건립
9. 미래사회와 환경에 대한 전망을 지닌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시민을 기르자
10. 올바른 가치관으로 배울 수 있고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거창
11. 균등한 교육기회를 통한 안전한 생태환경을 만드는 창의적 여성인재 양성
12. 신나는 노후를 위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행복한 거창
13. 소통을 통해 풀뿌리 교육이 실현되는 거창

□ 제2주제 :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미래형 교육센터)

○ 아동·청소년

- ▶ 돌봄교실(저녁돌봄 포함), 직장인을 위한 탁아소
- ▶ 돌봄과 방과후를 1층으로 해서 이용 편하게
- ▶ 장애아동, 청소년을 위한 돌봄, 문화, 스포츠 시설
- ▶ 복합공간(돌봄과 교육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 맡기고 어른 교육 받기)
- ▶ 무료 학습 공간(스터디카페), 방과 후 교육센터(거점형)
- ▶ 훈민정음센터, 생태놀이터(환경교육, 숲놀이 시설)
- ▶ 휴게쉼터, 영화관, 전시공연 공간
- ▶ 키즈카페와 같은 놀이시설
- ▶ 동아리 활동 가능한 세미나실
- ▶ 각종 동아리실 갖춘 평생교육시설
- ▶ 문화 익힘이 가능한 다문화 한국어 교실
- ▶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집합공간
- ▶ 체육, 문화, 학습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문화공간
- ▶ 주차장을 외부로 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
- ▶ 공연 가득한 곳
- ▶ 동아리 배움터, 교육놀이터, 실외(집 밖) 놀이공간
- ▶ 청소년을 위한 멀티(복합) 쉼터, 또래들의 모임 공간
- ▶ 다양한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 ▶ 거창의 특성을 담은 거창만의 복합 교육문화센터
- ▶ 복합 교육문화 특징을 갖춘 센터가 필요함(청소년 포함 전세대를 위한 평생 교육센터)
- ▶ 모두에게 열린공간, 배움과 재능 나눔이 있는 공간

- ▶ (아동, 청소년)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 ▶ 놀이공간, 방과후 수업, 건전한 알바공간
- ▶ 만남의 광장, 돌봄센터, 운동 공간
- ▶ 소통의 공간·사람·인프라
- ▶ 초중고, 대학이 연계되어 학생의 꿈이 실현되도록 시스템화
- ▶ 학업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열린공간, 놀이시설
- ▶ 청소년 사랑방, 진로체험 공간
- ▶ 질 높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 ▶ 직장맘을 위한 육아복지시설
- ▶ 남는 시설을 이용한 문화 휴식 공간
- ▶ 아동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연습실, 토론공간 등)
- ▶ 아동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공간(빈 건물, 남는 시설 활용)
- ▶ 청소년 예술공간
- ▶ 직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
- ▶ 면 단위 마을창고를 활용하여 예술공간 복지시설 활용
- ▶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활용하는 자체가 필요함.
- ▶ 마을별, 블록 개념으로 돌봄센터 마련
- ▶ 안전과 복지가 보장되는 사각지대 학생 지원
- ▶ 귀농, 귀촌정책 대폭 지원
- ▶ 이주민과 원주민의 상생, 경쟁 줄이고
- ▶ 놀이터(창의, 개발), 교육공동체(연구기관 포함)
- ▶ 군청(군수님) 의지, 교육청(전담 장학사) 의지
- ▶ 거창교육협의체 구성(의원, 교육계, 지역주민, 거창군, 아동, 청소년)
- ▶ 질문의 벽(철학과 기초과학 문제를 토론 할 수도 있는)
- ▶ 환경 실천프로그램(환경시설단지 활용, 줍깅데이, 제로웨이스트 활동)
- ▶ 농사, 요리, 교육이 함께 하는 교육
- ▶ 다양한 프로그램 연결

○ 청년

- ▶ 지자체 지원의 청년주택(3년보장, 15만원 정도)
- ▶ 원룸형 개인공간, 1층 공유부엌, 빵빵한 와이파이, (네트워크), 회의실
- ▶ 문화시설, 의료시설(응급실), 사용성 편리화, 빠른 정보와 소통

- ▶ 거창공유소통센터(이미 있는 다양한 공간을 연결하는 센터 역할)
- ▶ 필요한 프로그램(논, 밭, 마을공동체, 새로운 건물 건설 필요하지 않음)
- ▶ 누구나(남녀노소) 필요한(사용 가능한) 공간
- ▶ 약간 시끄러워도 되는 공장터 같은 공간, 공유오피스 처럼 컵, 빔프로/커피 차마실 공간
- ▶ 공익을 위해 센터 운영자는 권한이 필요
- ▶ 센터를 관리하는 인력, 각 부처간 칸막이 행정이 없어져야 함.
- ▶ 정보 컨트롤타워 필요
- ▶ 민관네트워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토론 자주 있어야 함

○ 중·장년

- ▶ 거창군 전체를 그려보고(그려놓고) 지원지청 자리에 센터를 면단위에 시설을
- ▶ 시설 공유,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공간
- ▶ 세계적인 도시 프라이부르크 같은 놀이도시
- ▶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 공간
- ▶ 걸어서 찾아 갈수 있는 문화공간
- ▶ 지금있는 공간을 창의적으로 리모델링
- ▶ 충혼탑 연계하여 가족단위 이용시설 마련 됐으면
- ▶ 지역별(면단위 회관이용)
- ▶ 미술관 등 찾아가는 공간에 예산 투자해야
- ▶ 아름다운 가감, 비움의 교육, 어른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 ▶ 직업교육 정보 프로그램 센터
- ▶ 즐거운 삶을 위한 취미, 적성개발 프로그램
- ▶ 가족과 함께 할수 있는 환경(자연), 휴식공간(책읽는 공원)
- ▶ 건강을 위한 운동센터(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 ▶ 신중년들에게 표현력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군립미술관, 공연장
- ▶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직업교육, 자격증 취득), 신중년 일자리 만들기, 나누기
- ▶ 노후준비가 필요한 장년을 위한 직업교육
- ▶ 소통공간(시민광장), 대형공연장, 미술관, 육아나눔터
- ▶ 직업교육 정보센터

- ▶ 세대간 어울림(밥상활동, 식생활교육, 공유부엌활동)
- ▶ 보여주기식 건물이지 않아야
- ▶ 각 세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행정직원 일할 공간
- ▶ 기존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 여성

- ▶ 아이돌봄 시스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기존 자원 활용)
- ▶ 기존의 시설을 활용한 공연장
- ▶ 노후화된 시설의 리모델링 → 공연장 확보
- ▶ 직장인 여성을 위한 저녁 아이 돌봄 시스템
- ▶ 면 단위 아이 돌봄 소규모 시설
- ▶ 기존의 시설 활용 및 리모델링 (예; 거창 문화원, 문화센터 공연장 활용, 초등학교나 기존 아동센터를 활용한 아이돌봄 시설 확충)
- ▶ 외국인 여성 노동자가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노인

- ▶ 폐교활용, 빈집활용
- ▶ 어르신마을학교/전래놀이, 장 담그기, 향토역사 등 전수
- ▶ 노인건강프로그램 운영(치매 등)
- ▶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동 급식소
- ▶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플랫폼
- ▶ 공동작업장, 대도시와 자매결연하여 농산물 직거래
- ▶ 1달, 1년 살기 사업(각 면마다의 특수성을 부각)
- ▶ 빈집, 폐가 환경정비 개선, 직거래 판매대 설치
- ▶ 문화예술 강의를 위한 시설, 환경 및 생태 교육 전시관
- ▶ 앉아서 하는 교육을 넘어서 4D교육 농촌 체험 교육 및 노인세대에게 배우는 교육

□ 소감나누기

- 시설계획 조금 더 고민해주세요
- 오늘 많은 것을 배우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자료는 군청에서 관계자들과 충분히 검토하여 복합교육문화센터 건립에 참고자료로 잘 쓰이기 바랍니다.
- 거창 교육도시 그릇안에 알찬 열매 담아내는 연구실 마련
- 처음 이런 경험을 해 보았는데 뜻깊은 기간이었던 것 같다.
- 새로 만난 여러 세대 조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거창의 좋은 미래를 위해 파이팅.
-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배우는 마음으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 아직 중1이라 대토론회에 참석하는 게 좀 무서웠는데 와 보니 내 생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진행자가 특정한 장소와 시설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어 불편함
- 오늘 토론회가 조금은 실망스럽지만 앞으로 진행될 토론회는 관(군수, 의원)에서도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함.
- 군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지 확인과정 필요
- 진행자, 퍼실리테이터가 원하고 있는 답이 있는 것 같아서 불편
-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의견들이 오고 가야 할텐데 번개볼에 공 붉는 격이네요
- "미래교육센터" 설립반대!
- 비슷한 의견(많음), 공통의 가치 실현, 미약하나 시작
- 토론회에서 거창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계속 토론회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 오늘의 토론 내용이 조금이나마 군 교육에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 수고 많았습니다. 이후 토론회를 자주 열고, 충분한 민의가 반영되기 바람
- 오늘 한 토론이 실제 군청에 반영되기 바랍니다.
- 수고 많았습니다. 좋은 토론이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진행자가 특정한 장소와 시설을 염두에 둔 발언을 하고 있어 불편했다. 토론에 나온 이야기가 잘 반영되길 바랍니다.
- 기대하고 참석한 토론이었지만 내 생각과 다른 느낌의 토론이라 조금은 아쉬웠다. 오늘 토론이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란다.
- 듣는 귀 X 계획하는 자 X 실행하는 자 X, 아무도 없고 그냥 군민들만 또 목이 터져라 외치고 끝난다.
- 우리 미래교육 대토론회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도 좋지만 인구 증가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인구를 외부에서 유입이 아니라 거창지역에서 많은 생산이 되었으면 합니다.
- 거창교육, 거창 미래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팀(시민, 교육자, 연구가)을 꾸려

주세요. 오늘 토론이 헛되지 않도록

- 고민의 시작! 이제부터 진짜 시작!
-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는데 재미있었어요. 그래도 학생입장에서 교육에 대해 너무 좋게 고민해주시는 분이 많아서 학교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 어려운 과제와 미래 오늘 토론한 내용이 일부 반영되길 바랍니다.
- 시간이 짧고, 모임에서 토론한 내용을 다같이 듣고 생각을 나눌 기회가 부족하다. (토론에 참가한 사람으로 허무하다.)
- 시간이 짧고, 전 분임의 토론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면 좋겠다. 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충분히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 (이야기 공간) 의견 수립, 시간 짧은 것, 전 조의 토론 내용을 공유(하면 좋겠다.), 연말에 한 번 더 ...
- 책임질 수 있는 관계자가 끝까지 참여하고 경청하는 토론회를 꾸려주세요.
- 각 세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토론회 응원합니다.
- 금일 토론 대단히 좋았습니다. 다음에 종종 하면 좋겠습니다.
- 군민들 작은 목소리를 세세히 담아내는 자리가 유익했습니다.
- 진지한 토론이었고, 몰랐던 부분도 알아 갈 수 있는 토론이었습니다.
- 아카데미파크 중심에 거창복합소통센터가 건립되길 기원합니다.
- 거창군민들이 교육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느끼고 갑니다.

■ 교육전문가 인터뷰

‘함께하는 거창’은 유튜브 ‘거창방송’을 통해, 거창에 거주하는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인터뷰하여 군청에 제공하였다.

1. 조윤주 창남초등학교 교사(교육학 박사)



2. 송성동 주상초등학교 교장



3. 강경근 거창연극고등학교 교감(교육학 박사)



■ 거창방송 유튜브 보기

유튜브에서 ‘거창방송’ 검색

URL : youtube.com/@gcibc

5 연대 활동

■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선출

초대 대표 : 윤동영(농민회 대표)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줄임 명칭은 ‘시사연’이라 부른다.

대표로 선출된 자는 사무국장(간사, 총무)을 임명하여 ‘시사연’을 운영한다.

■ 거창복합교육센터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의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거창여성회 사무실

참가자: 정성순, 이점도, 이은정, 방창호, 김대식, 홍정희, 정광희, 심순애, 이순정, 윤동영, 송성동, 윤순애(총12명)

안건1) 거창복합교육센터 건립(안) 관련 100인 토론회

현재 상황: 거창군의 요청으로 하반기로 연기

이유: 코로나 급속 확산

추진 방향: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내 복합교육센터에 대한 입장을 듣고 그것을 기반으로 후보자초청 토론회를 준비함.

질의서 준비: 후보자에게 보낼 질의서는 전교조거창지회에서 담당함--> 지회운영위에서 논의 필수.

질의서 검토후 각 후보자에게 시사연 이름으로 발송함.

안건2) 세월호 8주기 추모행사

내용1: YMCA청년회 주관 세월호 행사에 적극 결합하고 지원함(4.16). 학생들이 행사에 300,000원을 지원함.

내용2: 시사연에서는 세월호 추모 북콘서트 추진(4.20. 거창환경센터)

예상 비용: 대관료 100,000원

유가족 200,000원, 스태프 100,000원, 변호사 100,000원

비용 부담: 작년 행사후 잔액 70여만원으로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단체별 분담금을 각 50,000원씩 내서 행사에 지원한다.

안건3) 지방선거대비

선거대책팀으로 도교육감선거에는 이점도, 도지사는 홍정희님을 책임단위로 함
군수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만들어 지역 후보자에게 의견을 듣는다

정책질의서에 담길 내용은 단체톡에서 정리함(단체별로 의견 제출)

안전4)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족 추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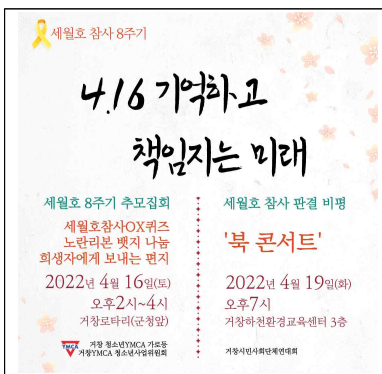
일시: 4.12(10시 30분)

내용: 추가로 희망하는 단체를 가입시킴

<분담금 지급>

『함께하는거창』 세월호 행사 분담금 50,000원 보냄.

4월 12일 발족 추진 기자회견 연기

 세월호 참사 8주기 4.16 기억하고 책임지는 미래 세월호 8주기 추모집회 세월호참사OX퀴즈 노란리본 뱃지 나눔 희생자에게 보내는 편지 2022년 4월 16일(토) 오후 2시~4시 거창로타리(군청앞) 세월호 참사 판결 비평 '북 콘서트' 2022년 4월 19일(화) 오후 7시 거창하원환경교육센터 3층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4월 16일 세월호 참사 8주기 거창로타리(군청앞)행사를 『함께하는거창』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으로 중계하고, 생방송 중계 후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하여 공유하고자 하였으나, 여학생 한 명이 박근혜에 대해 비난 발언을 한 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삭제를 요구한다는 YMCA 측의 부탁으로 내용을 삭제하고 4.19일 생방송도 전면 취소하였음.
---	--

4.19일 거창하원환경교육센터 3층에서 진행하는 세월호 참사 판결 비평 '북 콘서트'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여 『함께하는거창』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공유함.

■ 거창복합교육센터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의

5월 3일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의 개최(농민회사무실)

참석자 : 농민회(윤동영), 여성농민회(윤순애), 전교조(송성동), 사사세(조재필), 함거(이종성),

회의내용,

1. 복합교육센터 관련-이종성 함거 국장
2. 지방소멸과 cptp관련 입장-윤동영 대표
- 3.면지역 활성화-윤순애 회장
- 4.일자리 지역 쿠퍼제
- 5.청소년수당
- 6.거창초 활용방안

7.면지역 학교살리기-이상은 전교조
 위의내용으로 질문을 5월9일까지 준비
 5월12일 후보들에게 전달, 5월16일까지 답변(17일 답변), 19일 신문 보도.

『함께하는거창』 : 복합교육센터 질의서 작성
 <질의서 내용 자료 첨부>

■ 질의에 대한 후보자 답변

2022년 5월 17일 구인모, 김흥기, 권순모, 김홍섭 4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음.
 답변 내용은 함거운영위 카톡방에 공유.

■ 공무원 선거 개입 성명서 발표

공무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성명서 자료 첨부>

■ 거창복합교육센터 관련 시민사회단체 회의

장소 : 거창여성회 사무실
 시간 : 8월 16일 저녁 7시 30분
 주제 : 8.23 거창 100인 토론회

현실진단: 100인 토론에서 1부는 거창 교육의 미래에 대한 토론을 하고, 2부는 시설에 대한 토론을 한다는 계획을 봐서는 1부는 형식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을 취했지만 2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군청의 의도대로 우리는 따라갈 수 밖에 없어 원래 우리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다. 우리는 열려있는 진정한 토론을 원했고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해야 한다고 믿는다.

대응1: 군청의 진의 파악을 위해서 내일 군수면담을 신청하고 군수를 만날 수 없으면 담당과장이라도 만나서 단호하게 우리의 입장을 전달한다. 시간은 오후 2시 이후로 하고 최대한 참여한다. 8.23 토론회는 1부에 집중하도록 강력 요구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론 참여를 보이콧한다.

대응2: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구체적인 내용을 나누기 위해서 별도의 모임을 가진다.

거창군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인구교육과 과장과 면담을 먼저 한 후에 부족하면 군수 면담을 신청해 달라는 인구교육과의 요청이 있어서 먼저 인구교육과 과장 면담을 하기로 함.

장소 : 거창청소년수련관 2층 인구교육과

시간 : 8월 17일 오후 5시

군수의지

전문가 20~30명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제2주제 : 미래교육을 위한 방법(변경)

어제 저녁 **『함께하는거창』**에서는 100인 토론회와 관련하여 운영위원 논의가 있었습니다.

중점 토론한 부분은 제2주제 :미래교육을 위한 시설(미래형 교육센터) 입니다.

이 주제가 아무래도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거창군이 교육센터를 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주제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주제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시민단체가 참여한다면 이용당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제 변경안은, 미래교육을 위한 방법(방안) 정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거창군의 입장은 교육센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거 논의에서는 그렇다면 제2주제에서 ‘시설(교육센터)’를 빼는 것이나 변경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별것 아니라고 하고 절대 빠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속셈이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 경찰국 신설 거창시민단체 반대 현수막 관련

한대수 대표 거창경찰서 성현우 경찰청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을 만남.

행자부 경찰국 신설 반대에 대한 거창경찰서 및 전국 경찰 상황에 대해 공유하

고

거창 시사연이 함께 해 주면 큰 힘이 될 듯하다고 전함.

거창 시사연 의견 수렴 중.

[자료]

성명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풀뿌리 지방자치의 시작은 선거다. 정치 중립 의무를 지켜야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자 민주주의를 망치는 행위다. 6.1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소송으로 얼룩진 거창군은 여전히 넘어야할 산이 많다. 그 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은 엄중히 다뤄야하는 문제다.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이흥기 후보 측에서 제기한 공무원 조직적 선거개입 의혹은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왔던 공직사회 선거풍토에 대한 민낯이다. 줄서기, 편가르기, 관권선거 등 지역사회를 쪼먹는 행위였다. 이는 거창구치소 관련 주민투표 당시에도 재현된 바가 있지 않았던가. 여론을 조작하고, 이장들을 앞세워 불법을 저질러 군의원 한 명이 사법처리를 받기도 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조용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당사자에 대한 처벌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주의를 해치는 관행과 행태는 뿌리 뽑아야 한다. 특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선거개입은 더욱 그렇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도 높은 쇄신책을 내놔야 한다. 특히, 정치 세력화한 퇴직 공무원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한다. 선거를 앞두고 퇴직공무원 모임에 예산 8000만 원을 지원하려한 사실은 이번 사태의 전초전과 같은 일이었다.

사법당국과 거창군에 요구한다.

-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공무원 선거개입 의혹을 밝혀라.
- 공직사회는 이번 사태를 거울삼아 선거 중립 의무를 지키기 위한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
- 당선자는 정치 세력화한 퇴직 공무원 세력을 배격하라.

우리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피땀으로 일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번 사태를 끝까지 주시할 것임을 밝힌다.

2022. 06. 13

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논평

연임 거창군수는 꼭 인수위를 설치해야 했는가?

이번 지방 선거에서 당선된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수위원회를 설치했다고 한다. 구인모 군수는 연임이다. 전임 군수와 신임 군수가 동일인이므로, 자기가 인계하고 자기가 인수하는데, 위원회까지 설치하여 군 재정을 낭비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또한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시기에 이런 일로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 인수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새로 선출된 단체장에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단체장이 교체될 경우에 새로운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설치해 업무를 인계·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런데 거창군수의 경우 연임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를 인계·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수위를 설치했다.

거창군은 행안부 지침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이 연임하는 경우 인수위원회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이라는 대답에 따라 설치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로 그 밑에 행안부 답변에, ‘다만, 연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한 사례가 없는 점, 인수위원회 설치와 활동에 적지 않은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롭게 선출된 경우에 인수위원회의 실익이 더 클 것’이라는 문구도 있음을 외면한 듯하다.

2. 군이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가?

거창군수 인수위 설치의 위법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군이 인수위를 설치해서 군민의 세금을 낭비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여비)를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경우에는

「거창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거창군은 이번 인수위원의 수당은 1회 회의(2시간 내외)에 5만 원 지급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간도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거창군의 예산으로 보면 작다고 할 수도 있지만 8명의 위원에 매일 1회씩 지급한다 해도 수백만 원이다.

3. 인수위원 구성은 적합한가?

또한, 인수위원 구성에 군정을 감시해야 할 언론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한 보기에 좋지 않다. 요즘 언론인이 포함된 인수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스컴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거창도 여기에 속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상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번 거창군수 인수위원회 설치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쪼록 거창군을 이끌 제8기 민선 단체장으로서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보이길 바라며, 내 편만 잘 사는 사회보다 함께 잘 사는 거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

함께하는 거창

2022.06.17

질의서

6.1 지방선거 거창지역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수신:후보자

발신:거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 거창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후보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이번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거창지역의 현안문제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의논하여 후보자님들께 질의하오니 답변바랍니다.

답변시한:5월 17일 낮 12시

질의 1. 거창군복합교육센터

거창군은 현 지원지청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교육센터’ 건립을 목적으로 2019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예산은 893억 원이며, 수지 분석 결과 매년 15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5억 적자의 운영수지 산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출은 56.1억 원, 수입은 41.7억 원입니다. 지출은 인건비, 운영관리비, 콘텐츠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이므로 지출이 줄어들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입을 보면 교육프로그램, 진로체험 프로그램, 공연장 수입,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현재 운영 중인 ‘거창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의 대관료 수입이 예상과 달리 0원임을 감안하면 수입이 대폭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물 보수비용까지 추가되면 결국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미래 거창군의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경남의 인기 있는 도서관 현황을 보면 ‘김해 지혜의 바다’, ‘마산 지혜의 바다’, ‘합천 가야산독서당정글북’ 모두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진주 예술교육원 해봄’ 또한 폐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염려하고 있는 학생 동아리 활동이나 일반인의 동호회 활동 공간 부족도 청소년수련관, 문화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면 활용할 공간이 있고, 읍사무소 읍민의 방, 하천센터, 동사무소, 경로당 등도 이용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창의 인구와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듦과 빈 교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거창군에서 태어난 아이가 200명도 되지 않고 면 단위에서는

한해 한두 명의 아이가 태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현상을 감안 한다면, 거창군이 새롭게 초대형 복합교육센터를 건립할 것이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한마음도서관’, ‘거창도서관’, ‘거창문화센터’, ‘상살미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삶의 쉼터 등과 함께 현 지원지청 및 거창초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의 빈 교실들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활용도가 낮은 기존 건물들을 제대로 파악하여 이용하며, 강남지역과 면 단위 지역까지 넓고 고른 활성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 2 . 일자리 지역할당제

거창의 청년들은 우리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는 외부로 나갈려는 청년에게 거창에서 군민들에게 봉사하고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자리 지역 할당제는 거창에서 나고 자라서(중,고,거창대학 졸업) 어른이 되어 거창에서 안정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거창군 지방직공무원 선발시험에서 총 정원의 10%를 뽑도록 한다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고, 좋은 인재들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 후보자님께서서는 지방공무원할당제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시하고 반대할 경우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찬성 / 반대)

(반대 이유나 대안 제시:

)

질의 3 . 청소년수당

거창은 교육도시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불리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학업 때문에 유학을 오는 몇 몇 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이 제일 큰 이유일 겁니다. 그 밖에 특별한 것은 무엇인지 찾기 어렵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면 여러 곳에서 알바생들이 일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 복지차원에서 청소년수당이 지급된다면 경제적 형편 때문에 이곳 저곳 알바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에 위로가 되며 책도 살 수 있고, 공부하다

가 오는 길에 간식도 사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함께 남 눈치 안보고 떳떳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벌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 후보자님께서서는 청소년수당 지급에 대해 찬성인지 반대인지 표시하고 반대 할 경우 그 이유를 적어 주십시오.

(찬성 / 반대)

(반대 이유나 대안 제시:

질의 4. 면지역 학교 살리기

거창군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구정책입니다. 예상 가능한 정책으로 출산율 높이기, 타 시도에서 거창으로 찾아오는 가정에 지원금 지급, 그리고 외부로 인구유출방지 등이 있겠습니다.

이런 인구정책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교육정책입니다. 농촌도 살리고 교육도 살리기 위해서 적극이고 창의적인 정책 마련이 필수입니다. 가북면과 신원면은 LH공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거창군청은 이와 같은 정책을 더 확대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그 밖에 인구증가에 획기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후보자님께서서는 면 지역 학교 살리기 방안에 대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질의 5. 지방소멸

지금 농촌지역 소멸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후보자 께서는 거창이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질의 6. cptpp

우리나라는 수많은 나라와 fta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있는 cptpp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cptpp가 우리나라와 농업지역인 거창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또 가입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이유와 함께 답변바랍니다.

질의 7. 면지역 활성화 관련 질의

거창군은 문화 교육등등이 읍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미 읍에는 문화센터, 도서관 등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복합교육센터에 중복되는 시설을 추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지역에

어린이, 청소년,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면지역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야 마을이 있고 거기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들어 올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있어야 면단위 학교도 살리수 있고 지역에 활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면지역 활성화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놀이터가 있으면 자연스레 아이들이 모이고 또 젊은 부모님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면 새로운 일을 꾸려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면지역의 작은 도서관, 학부모 사랑방, 놀이터, 다목적 공간에서 공동육아을 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면지역에 문이 닫힌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확보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서는 면지역 활성화에 대한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거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함께하는 거창, 푸른산내들, 거창YMCA, 거창군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 거창민예총, 거창진보연합, 거창전교조, 거창언론소비자주권행동, 거창 사람사는세상, 거창여성회)

회원 소모임 활동

푸 른 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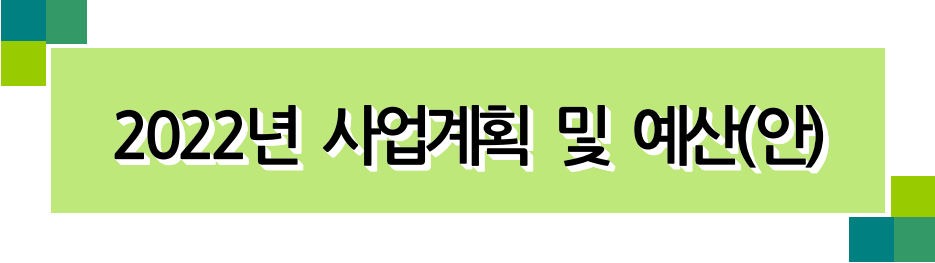
우리 지역의 가까운 산과 전국의 명산을 찾아 자연과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회원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줍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다. (산행대장: 백철우)

■ 7월 정기산행

1. 날짜 : 7.16(토) 오후4시
2. 참가자 : 김영수, 이창희, 방창희, 이기식, 권문상, 백철우, 정은주(7명)
3. 코스 : 미륵덤이 --> 견흥산
4. 산행시간 : 1시간

■ 8월 정기산행

1. 날짜:2022년8월28일(일)
- 2.참가자 : 김영수, 최정애, 윤철, 방창희, 백철우 5명
- 3.산행코스 : 선운사주차장--->투구바위-->사자바위-->배면바위-->도솔암-->선운사주차장.
- 4.산행시간 : 5시간.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2023년 사업 계획

2023년 『함께하는계장』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봅니다.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다. 『함께하는계장』이 건강한 지역 사회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무국

- “군의원 업무평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함께하는계장』 회원들과 함께 주관적 평가도 병행해 나가겠다.
- 기본업무에 충실하며, 『함께하는계장』이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
- “군정감시 활동, 지역 정책 제안, 조직의 운영,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겠다.

■ 홍 보

- 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하겠다. 내용을 풍부하고 다채롭게 실어 읽고 싶은 소식지, 회원이 기다리는 소식지로 만들겠다.
- 『함께하는계장』의 활동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잘 전달하도록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 SNS,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하겠다. 특히 『함께하는계장』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 하겠다.

■ 회원 활동

- 회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등산모임 푸른숲과 작은권리찾기모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 회원들의 요구, 취향에 따라 새로운 소모임 혹은 함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겠다.

■ 후원이사회 활성화

- 재정 확보를 위해 후원이사회를 활성화하겠다.

■ 부속 연구소

- 동영상은 제작하여 『함께하는거창』 유튜브 채널에 등록하겠다.
- 사업방향 : 거창지역 현황분석, 정책대안, 거창의 인물, 거창의 역사, 거창의 지리, 거창의 문화, 거창인의 작품 등, 기타 거창에 관련된 주제.
-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함께하는거창』 Positive 정책

-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에 좀 더 중점을 두겠다.
- 거창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하겠다.
- 투명한 기부문화 플랫폼을 구상하겠다.

■ 중점사업

- 군정감시 비판기능 강화.
- 군의원, 군수 활동평가.
- 읍내 (장애인) 보행자 조사 개선안 제안.
- 거창의 가치 있는 자료 결집(글, 사진, 동영상)

2023년 예산(안)

1. 일반회계(사무국)

(단위:원)

수 입			지 출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구 분	계정과목	금 액	
회비수입	회비수입	18,000,000	인 건 비	활 동 비	14,400,000	
	후원금(사)	0		상 여 금	0	
				퇴직적립금	1,200,000	
				복리후생비	0	
기타수입	이자수익	5,000	사무유지비	건물관리비	4,200,000	
	차 입 금	0		기기구입비	500,000	
	잡 수 입	1,200,000		사무용품비	300,000	
	전년도 이월금	8,980,425		세금과공과금	5,000	
				소모품비	100,000	
				수 선 비	0	
				수도광열비	500,000	
				통 신 비	550,000	
				사 업 비	도서인쇄비	500,000
					발 송 비	500,000
					분 담 금	1,000,000
					사 업 비	2,043,855
					회원활동비	1,000,000
					회 의 비	200,000
			출장연수비		0	
			잡 비		300,000	
			사업외비용	차입금 상환	0	
				예 비 비	886,570	
수입합계		28,185,425	지출합계		28,185,425	

정관 개정(안)

함께하는 거창이 공익단체 지정을 받기 위해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정관을 개정코자 한다.

제31조 개정 전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및 『**함께하는거창**』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31조 개정 후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함께하는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2023. 1. 31 개정)

제36조 개정 전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함께하는거창**의 설립 취지와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2009. 1. 20 개정)

제36조 개정 후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2023. 1. 31 개정)

『함께하는거창』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함께하는거창』이라 한다.

제2조(목적) 『함께하는거창』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동력으로 하여, 생활세계에서의 주권확보와 참여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실천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주의 사회의 실현과 자치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함께하는거창』의 사무소는 거창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사업) 『함께하는거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운동-사업을 전개한다.

1. 주민자치 운동 : 참여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에의 주민참여 활동
2. 자치공동체 회복운동 : 자치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
3. 공론영역 형성운동 : 생활세계의 과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합리적 공론을 형성하는 활동
4. 자치언론 개혁운동 : 자치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 언론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5. 민주시민 교육운동 : 주민들의 주권의식과 참여의식 재고를 위한 회원 및 주민교육 활동
6. 기타 이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회원가입) 『함께하는거창』의 목적에 뜻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가입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회원이 된다.

제6조(삭제, 2006년 1월 17일)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함께하는거창』이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함께하는거창』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3. 『함께하는거창』 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

1. 『함께하는거창』의 정관을 준수할 의무
2. 『함께하는거창』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
3.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9조(상벌) 『함께하는거창』의 발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다음과 같은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회원총회에 보고한다.

①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본회의 포상 대상이 된다.

1. 회원으로서 본 회의 각종 사업과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가 인정되는 자.
2. 비회원으로서 참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②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견책 또는 경고를 통해 반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

1. 회원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인정되는 자.
2. 이 모임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해 본 회에 피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자.
3. 위항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그 직의 수행을 중지 또는 해임할 수 있다.

제4장 기 구

제1절 회원총회

제10조(지위)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1조(소집) 정기 회원총회는 연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임시 회원총회는 재적 회원 1/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권한 및 의결) 회원총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을 토의, 결정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의결할 내용을 반드시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서면 및 **문자**로 통지하여야 한다. 회원총회에서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 회원총회에서 다음의 사항들을 결정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개선(공동대표, 감사)
3. 예·결산 및 사업계획의 승인
4. 기타 중요한 안건

제13조 (출석) 회원은 회원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직접출석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단, 임원선출은 제외한다.

제14조 (임원개선의 절차) 임원의 선출방법은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합의로 임명하고 회원총회에서 승인 받는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5조(지위) 운영위원회는 『함께하는거창』의 일상적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련한 사항들을 의결·집행하는 기구이며, 모든 회의는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16조(구성) 운영위원회와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 각 회원활동기구의 대표와 사무국장 및 후원이사회 회장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2.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의 1항의 구성원과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운영위원장은 상임공동대표가 겸직하고, 부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1개월마다 운영위원장이 정기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확대운영위원회는 제16조 2항에 의거 구성할 수 있다. 단, 운영위원 1/5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아래에는 상임공동대표를 회장으로 하는 상시 회의기구인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상임위원을 선임하여 운용할 수 있다. 운용 규정과 방식은 정기운영위원회의 재량으로 한다.

제18조(의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권한) 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각종 사업 및 활동의 입안과 집행
2. 회원활동 기구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
3. 운영위원 위촉, 후원이사,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4.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내규의 제정과 개정
5. 사무국의 유지, 운영에 관한 사항
6.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7. 기타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무의 처리

제20조(사무국) 『함께하는거창』의 활동을 총괄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 정책, 기획, 홍보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3절 공동대표, 고문, 자문위원회, 감사, 후원이사회

제21조(공동대표 및 상임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함께하는거창』을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통할한다. 공동대표는 3인 이내 두고,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 공동대표 호선에 의해서 1인의 상임공동대표를 선출한다.

제22조(고문)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을 하고, 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역의 신망 있는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함께하는거창』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문에 응할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한다.

제24조(감사) 『함께하는거창』의 사업 및 재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후원이사회) 『함께하는거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고, 후원이사 호선에 의하여 후원이사회 회장을 선출한다.

제4절 회원활동기구

제26조(회원활동기구) 회원은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회원활동 모임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자발적 회원활동 모임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음으로 해서, 공식 회원활동기구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

① 의무

1. 활동상황에 대하여 회원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2. 활동결과에 대한 대외적 발표 및 대응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② 권리

1. 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활동에 필요한 회원지도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3. 필요한 대외적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절 연구소

제27조(명칭 및 소속) 본 연구소는 '『함께하는거창』 부속연구소'(약칭 함께하는 연구

소)라 칭하고 『함께하는거창』 산하에 둔다.

제28조(목적) 연구소는 거창과 지역의 전반에 걸친 연구를 진작하고 그 결실을 결집하여 지역의 발전은 물론 군정, 행정 등 일선 현장에서의 활동 발전과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되, 본 정관의 '제2조'와 '제4조'에 부합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제29조(주요사업) 연구소는 '제27조' 와 '제28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거창 지역에 관련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분야에 대한 연구
2. 거창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그와 관련된 전문인력 또는 단체의 연대활동
3. 학술세미나, 발표회, 강연회 등의 개최
4. 관련 연구문헌 및 자료 수집
5. 학술지 및 연구자료집 발간
6. 유관 연구소 및 학술단체들과의 공동작업
7. 그 외 연구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장 재정

제30조(회계연도) 『함께하는거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 1.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2.당해 연도 결산(안)은 회원총회 개최 전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회원총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3.정기총회에서 승인받은 예.결산서 및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함께하는거창』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2023.

1. 31 개정)

제32조(수입)

1. 『함께하는거창』의 수입은 회원회비, 후원금, 특별기금, 기타수익으로 한다.
2. 특별기금은 후원이사회에서 관리하며 그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할 때 후원 이사회의 결의를 따른다.

3. 특별기금의 이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회비) 회원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4조(정당 활동의 제한) 공동대표와 사무국장 및 운영위원은 선출직공직에 입후보하는 경우, 정당의 주요당직을 맡을 경우 사임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라도 자동으로 그 직을 상실한다.

제35조(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내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제36조(해산 및 잔여재산의 귀속) 『함께하는거창』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지역신문, 인터넷 등에 공고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2023. 1. 31 개정)

부 칙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1년 2월 23일 정기총회에서 1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4년 7월 16일 임시총회에서 2차 개정(전면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5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3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6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4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09년 1월 20일 정기총회에서 5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2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6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7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3년 1월 28일 정기총회에서 8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7년 2월 2일 정기총회에서 9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019년 1월 24일 정기총회에서 10차 개정, 통과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